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Economy

제3355호 2015년 12월 3일 목요일

[뉴스]
52조원
저커버그의
착한 기부
3

코스피	코스닥	금리(국고채 3년)	환율(원·달러)
2009.29 (-14.64)	690.32 (-1.63)	1.77 (-0.02)	1163.00 (+5.00) 〈22일〉

2.7년 vs 6.3년 … CEO 수명이 경쟁력 좌우

4대지주 은행장 평균 2.7년 그쳐
글로벌 금융사들 6.3년과 대조적
존 리드 前씨티은행장 무려 15년

자산·시장 점유율 상향 등
단기 성과주의에만 주력
"관치금융부터 없애야"지적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1.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신한사태 당시 만들어진 '나이제한(70세 이하)' 규정에 걸려 더 이상(2017년 3월) 연임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한은 내년에 '포스트 한동우'를 대비해야 할 시기를 맞는다. 무리하진 않지만 소신이 강한 최고경영자(CEO)다. 풍부한 경험에 포용의 리더십을 갖춘 '덕장(德將)'으로 유명하다. 취임 당시 '신한사태'에 따른 임직원의 분열로 조직에 상처가 났지만 1년 만에 조직을 안정시켰다. 또 취임 첫 해에 3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다.

#2. 김주하 NH농협은행장. 김 행장은 올 3·4분기까지 농협은행의 순이익을 지난해 동기보다 54.2%(1,517억원) 끌어 올리며 경영 능력을 인정 받았다. 탁월한 경영성과를 냈지만 그가 자리를 지킬 지는 미지수다. 이달 말이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농협행장은 연임한 전례가 없다. 농협금융은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해 내년 1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새 농협은행장 선출 논의에 착수했다. 임추위는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새 행장을 뽑는다.

국내 은행지주회사들이 최고경영자(CEO)들의 짧은 임기 탓에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펴기 힘든 것으로 지적된다. 미국 대형 은행들의 CEO 재임기간은10년 이상 되는 곳이 있지만 국내 은행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3년이 채 안된다.

〈국내외 주요금융지주회사 영업이익 구조〉 (단위:%)

	국내 은행지주회사 평균	Citi	JP morgan	Bank of America	HSBC	해외금융지주회사 평균
이자이익	74.3(80.1)	60.3(62.2)	45.7(46.3)	46.0(47.4)	51.0(56.7)	50.9(53.1)
비이자이익	25.7(19.9)	39.3(37.8)	54.3(53.7)	54.0(52.6)	49.0(43.3)	49.1(46.9)

*3분기 누적 기준, ()=2014년 기준

자료= 각사 경영공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은행장 평균 임기 2.7년

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지주사에 따르면 국내 4대 은행지주사의 CEO 평균 재임 기간은 2.7년으로 나타났다. 반면 JP모간, 씨티그룹, 웰스파고, 뱅크오브아메리카, HSBC 등의 재임 기간은 6.3년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제이미 디몬 JP모건체이스 CEO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 미국내 4위 은행인 웰스파고의 존 스텀프 CEO는 2008년부터 회장직을 겸하고 있다.

존 리드 전 씨티은행장은 15년 이상을 최고경영자로 재임하면서 씨티은행을 소비자 금융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은행으로 성장시켰다.

자본시장연구원 안유미 연구원은 "경영층의 재임기간이 짧을 경우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해 장기적인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힘들다"면서 "성과주의에 치중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기가 짧다 보니 '자산, 시장점유율을 얼마로 늘리겠다'는 단기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금리와 수수료 등 가격을 낮추는 등 성과주의에 내 몰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 2001년 말 155조원에 불과하던 은행지주회사의 덩치(총자산)는 1500조원(2014년 말)까지 커졌다.

특히 신한·NH농협·하나·KB금융지주 등 4대 은행지주회사의 평균자산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2.4%였다. 이는 미국의 주요 4대지주 11.8%를 웃돈다.

반면 수익구조는 '덩치 큰 비만아'가 됐다. 국내 4대 은행지주사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3·4분기 현재 평균 25.7%였다. 49.1%에 달하는 해외 금융지사들과 비교된다.

◆"은행장 임기 늘려야 경쟁력 높아져"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행장의 짧은 임기가 국내 은행의 수익성 하락을 야기하는 요인이다.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행장 임기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은행권에서 대규모 부실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도 임기와 무관치 않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고객 이해에 기반을 둔 대출 비즈니스'에서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은행 가운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안정된 이익을 달성해 온 것도 은행장의 재임기간이 길어서 장기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장의 재임기간만 늘려줘도 임직원의 성과평가 지표가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지표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은행 전체가 장기 성과 중심으로 전환되면 앞뒤 없이 가계대출 등을 늘려 부실을 눈덩이처럼 키우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외환위기 이후 부실의 주된 원인이었던 기업대출을 줄이는 대신, 새 수익원을 통해 단기 성과를 올리려고 상환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가계대출을 늘린 결과가 가계부채 문제라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이 장기 성과 중심으로 경영되기 위해서는 '관치 금융'이라는 말부터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사진=뉴시스

전월세 거래량 40%는 월세… 월 평균 임대료는 81만원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 급증
2012년보다 2배 이상 껑충
강남 월세 보증금 1억 넘어
주택도 월세 거래량 증가세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서울시 정책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시내 전·월세 거래량을 비교한 결과 전세거래는 제자리 수준이지만 월세 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월세 거래량은 2012년 10만2000건에서 올해 15만4000건으로 3년새50% 이상 증가했다. 전체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거래 비중은 2012년 31.1%보다 10%포인트 가량 늘어 41.0%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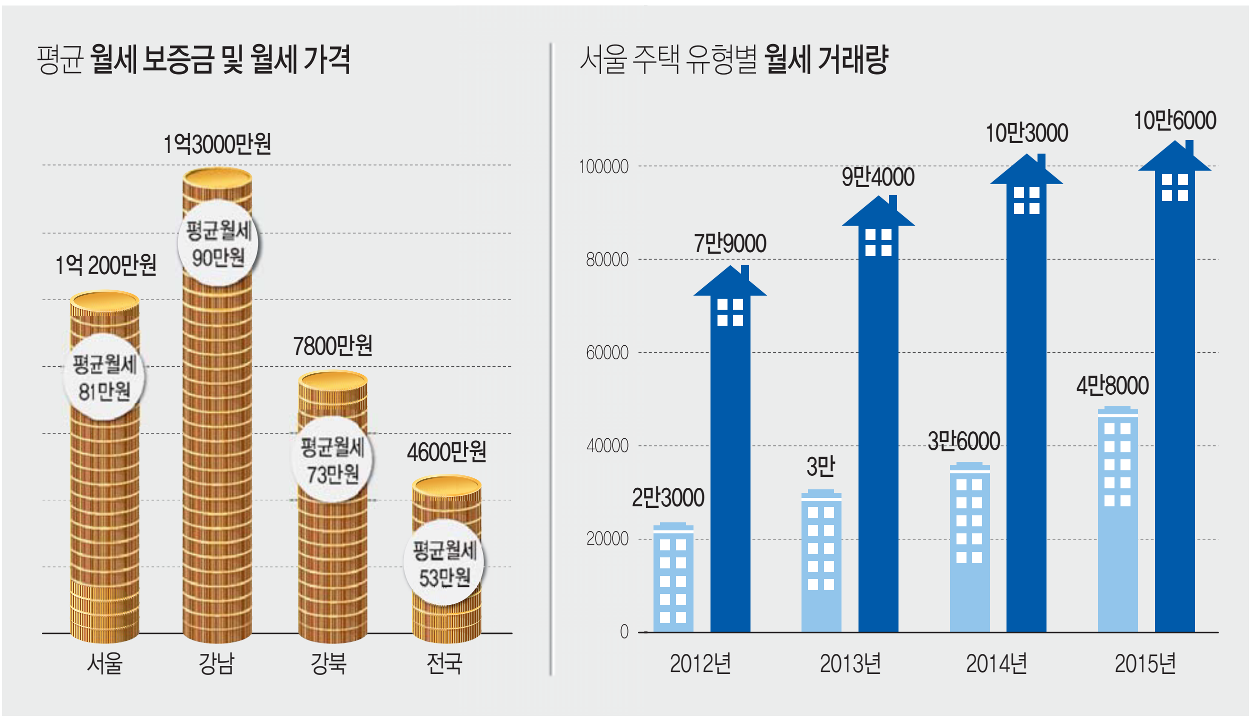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올해 4만8000건으로 2012년 2만3000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월세 비중은 2012년 17.2%에서 올해 32.3% 수준까지 늘었지만 아파트 전세는 2012년 82.8%에서 올해 67.7%로 떨어졌다.

아파트 외 주택에서는 월세 거래량이 2012년 7만9000건에서 올해 10만6000으로 27.8% 늘었다. 반면 전세 거래량은 2012년 22만4528건에서 올해 22만1869건으로 소폭 줄었다. 전체 거래량은 월세보다 많지만 비율은 2012년 68.9%에서 올해 59.0%로 줄었다.

서울시내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200만원이었다. 월 임대료는 평균 81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월세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강남이 보증금 1억3000만원, 월 임대료 90만원이었다. 강북은 보증금 7800만원에 월 임대료 73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월세 보증금은 4600만원에 월 임대료 56만원 수준이었다.

/박상길기자 sweatsk@



주: 2015년 10월 표본조사(전국 25,260개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대상) 결과의 평균 금액이며 보증금과 월세 조합이 준전세, 준월세, 월세 등으로 다양하여 지역 보증금과 월세의 개별 비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한국감정원(2015.10), 주택가격동향조사

한줄 News

정치사회

▲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전국 대의원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명개정 추진을 사실상 확정했다. 새정치연합 창당 6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인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명개정과 관련해 전국 대의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의견이 73%로 압도적이었다"고 밝혔다.

▲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로 한쪽 다리를 크게 다친 **김정원**(23) 하사가 2일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퇴원했다. 김 하사는 지뢰도발로 부상한 지 4개월 만에 의족을 착용한 채 두 다리로 걷게 됐다.

국제

▲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딸의 출산을 맞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 지분의 99%(약 52조 원)를 생전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해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다.

▲ **한국**은 지난해 1차 에너지 총 공급량(TPES)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1.1%로 잠정 집계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1990년 이후 25년간 1.1%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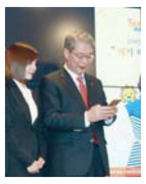
▲ '결단의 승부사'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다. 올 3·4분기 565만대 판매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8.6%를 기록한 현대기아차가 11월까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 가고 있다.

▲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통해 국내 미디어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신과 미디어 융합을 선도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금융·부동산

▲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44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나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한 '**불황형 흑자**' 형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주하** NH농협은행장 등은 조직을 안정시키고 순이익을 끌어 올려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임기 제한 등에 조만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전문가들은 조직의 장기적인 전략 추진을 위해 재임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  **신한은행**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용한 모바일 전문은행 'Sunny Bank(써니뱅크)'와 무인 스마트 점포 '디지털 키오스크'를 선보이고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바이오 인증 시대의 막을 열었다고 생각한다"며 축하인사를 전했다.

▲ 포스코건설의 경남 창원시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 삼성물산의 경기 용인시 '래미안 수지 이스트파크'에는 각각 단지 주변에 실내수영장, 농구장, 운동장 등을 갖춘 창원스포츠파크와 수지체육공원이 인접해 있다. 이처럼 **분양시장**에서 입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이나 경기장 인근 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유통·라이프

▲ **롯데마트**가 경남 창원 양덕동에 '제3세대' 마트를 열었다. 제3세대 마트는 소비자에게 직접 생활을 제안하는 데 방점을 둔다. 롯데마트 양덕점은 첫번째 제3세대 마트다.

▲ **유통업계**에 스타워즈 마케팅이 한창이다. 유니클로, 해즈브로코리아, 신세계백화점, 밀레 등이 스타워즈 관련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출시하며 개봉 전부터 인기몰이에 나섰다.

▲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최근 테러위협 증가에 따라 테러경보가 평시 수준인 '관심' 단계로 환원될 때까지 지하철 시설에 테러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삼성 임원승진폭 '8년전 최소치' 될 듯

주력 계역사 실적 저조해
작년보다 승진자 더 줄고
퇴임 임원수는 크게 늘듯

2일 오전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2016년 정기 사장단 인사 후 처음 열린 사장단 회의에 신임 사장들이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 무선사업부장 사장, 정칠희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사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 사장, 한인규 호텔신라 면세유통사업부문 사장, 성열우 삼성 미래전략실 법무팀장 사장, 정현호 삼성 미래전략실 인사팀장 사장. /연합뉴스

삼성그룹이 오는 4일 실시 예정인 후속 임원인사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삼성은 지난 1일 사장단 인사에서 사장 승진 6명, 대표 부사장 승진 1명, 이동·위촉업무 변경 등 총 15명에 대한 내정 인사를 했다. 이어 4일께 후속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은 지난해에도 사흘 간격을 두고 12월1일 사장단 인사, 4일 임원 승진 인사, 10일 조직개편을 발표한 바 있다.

재계는 올해 삼성 임원 승진 규모가 지난해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은 2010년 말 발표한 2011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490명을 승진시킨데 이어 2012년 정기 임원인사에서도 501명을 영전시켰다. 이후 삼성은 2013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485명을 줄인데 이어 2014년 정기 임원인사에서도 475명으로 축소시켰다. 지난해 연말에 단행된 201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는 353명으로 대폭 줄였다.

올해는 작년보다 승진자 수가 더 줄어 최근 8년간 최소치인 2008년(223명)과 비슷하거나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력 계열사들이 예상보다 못한 실적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재편과 인력조정을 거치면서 임원 수가 크게 준 것도 임원인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삼성은 지난해 한화에 매각한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에 이어 올해 삼성SDI 화학부문, 삼성정밀화학, 삼성BP화학까지 석유화학과 방위산업 계열사 7개사를 매각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SDS와 삼성SDI 간의 사업구조조정 필요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임원 승진이나 이동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 퇴임 임원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1월 30일과 지난 1일 사이에 계열사 내 퇴임 대상이 된 임원들에게 개별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임원 규모가 1200여명인 삼성전자에서만 20% 가량 임원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삼성은 임원 인사가 끝나면 조직개편을 발표한다.

삼성전자는 권오현·윤부근·신종균 대표의 기존 3톱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이들 3명의 부문장이 중장기 사업전략 구상과 신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하기로 했다. DS(부품)·CE(소비자가전)·IM(IT모바일) 부문 각 사업부의 책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역할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 삼성물산은 윤주화 패션부문 대표가 사회공헌위원회 사장으로 이동하고 오너가인 이서현 사장이 패션부문장을 맡음에 따라 기존 4인 대표 체제에서 3인 대표와 오너 1인 체제로 바뀌어 후속 조직개편 방향이 관심을 끌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크 시너지를 위해 패션과 상사부문을 합치고 건설과 리조트·건설 부문을 합쳐 크게 두 부문으로 결합하는 방안과 패션과 상사부문만 합쳐 세 부문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삼성SDS는 홍원표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장이 솔루션사업부문 사장으로 옮겨감에 따라 솔루션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정기 사장단 인사 다음날인 2일 첫 수요 사장단 회의가 열렸다. 승진하거나 자리를 옮겨 첫 출근한 사장들은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삼성전자 IM 부문 사장으로 발탁된 고동진 신임 무선사업부장은 "일단 기분은 좋고 설렌다"며 "내년 시장 상황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신종균) 대표님 모시고 제가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부사장에서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한 고한승 사장은 "직급에 상관없이 항상 열심히 해왔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나스닥 상장와 관련해서는 "준비가 잘 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인규 호텔신라 면세유통사업부문 사장과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에서 삼성사회공헌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윤주화 사장 역시 "열심히 해야죠"라며 각오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춘성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가 '초연결시대의 성공전략, 매개하라'를 주제로 강연을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네이버 '검색어' 로 본 2015년

모바일은 '미세먼지', PC는 '메르스' 가 달궜다

생활정보·사회 이슈 상위권
인물 '설현'·영화 '암살' 최다

NAVER 2015 검색어 결산

모바일 검색		PC 검색
미세먼지	1	메르스
복면가왕	2	홈택스
그녀는 예뻤다	3	쿠차
외모지상주의	4	응답하라 1988
메르스	5	냉장고를 부탁해
냉장고를 부탁해	6	설현
응답하라 1988	7	그녀는 예뻤다
설현	8	복면가왕
프로듀사	9	프로듀사
유승옥	10	외모지상주의

모바일 이용자들이 올 한해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는 '미세먼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PC에서는 '메르스'를 가장 많이 검색했다.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인 '최다' 검색에서는 부동의 1위였던 '다음'이 2위로 밀려나고 '유튜브'(PC)와 '날씨'(모바일)가 1위를 차지했다.

네이버는 올 한해 동안 이용자가 PC와 모바일에서 네이버 통합검색창을 통해 많이 입력한 검색어를 집계한 뒤, 전년도에 비해 검색 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키워드를 2일 공개했다.

네이버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이용자가 PC와 모바일 통합검색창에 입력한 키워드를 집계했다. 올해는 전년도 대비 검색횟수가 증가한 '전년 대비 상승', 절대량 기준으로 많이 입력된 '최다', 월별로 많이 검색된 '월별', 인물·영화·음악 등 분야별로 많이 입력된 '분야별' 등 4가지 기준으로 검색어를 집계했다.

전년 대비 상승한 검색어는 PC의 경우 '메르스'(1위), '홈택스'(2위)였다. 모바일에서는 '미세먼지'(1위) 등과 같이 사회적 이슈나 생활형 정보들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모바일의 경우 생활형 정보 이외에도 '복면가왕', '그녀는 예뻤다', '외모지상주의', '냉장고를 부탁해', '응답하라 1988' 등과 같이 방송, 웹툰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키워드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절대량 기준으로 많이 입력된 '최다' 검색어는 지난 몇 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포털 경쟁사 '다음'이 2위로 밀려났다. PC는 '유튜브', 모바일은 '날씨'가 각각 1위를 차지한 것.

'다음'은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2위를 각각 기록했다. 10위까지의 순위를 보면 PC에서는 '쿠팡'(4위)과 '환율'(10위)이 눈에 띄었고, 모바일에서는 '미세먼지'(8위)와 '쿠팡'(10위) 키워드가 올해 새롭게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월별로 많이 입력한 검색어는 '킬미힐미'(1월), '오 나의 귀신님'(7월), '용팔이'(8월), '신서유기'(9월), '응답하라 1988'(11월) 등 예능 및 드라마 관련 키워드가 월별 1위를 기록했다.

'손호준'(2월), '예원 이태임'(3월), '장동민'(4월) 등의 인물이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5월에는 '메르스'가 1위를 기록했고, 6월에는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공감검색을 이용한 이벤트 관련 검색어 증가로 '유상무 잘생겼다'가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네이버는 분야별로 인물, 시사, 예능, 드라마, 영화, 음악, 스포츠, 책, V스타, TV캐스트, 웹드라마, 웹툰 등 모두 12개 분야에 대해 PC와 모바일에서 많이 입력한 검색어를 집계했다.

인물로는 '설현', 시사 '메르스', 예능 '무한도전',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 영화 '암살', 음악 '레옹', 스포츠 '프로야구', 책 '미움받을 용기', 셀럽의 실시간 라이브 동영상 서비스 V스타 '빅뱅'이 각각 가장 많이 검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문경 기자 hm0108@

저커버그, 갓 태어난 태어난 딸에게 52조원 깜짝 기부

‘착한 기부’ 뒤 ‘착한 정책’ 있었다

페이스북 지분 99% 기부 공언
빌 게이츠 부부도 감탄·응원

美 ‘의결권 강화’ 슈퍼주 운영
벤처창업자 경영권 철통 보호

선의의 정책에 선의로 화답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왼쪽)와 그의 부인인 소아과 전문의 프리실라 챈이 갓 태어난 딸 맥스를 안고 있다. 저커버그 부부는 1일(현지시간) 딸에게 보낸 공개편지를 통해 저커버그가 가진 페이스북 지분 99%(약 52조 원)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연합뉴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창업자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열린 제21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클린 에너지 개발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AP 뉴시스

미국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1일(현지시간) 갓 태어난 딸(Max)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대신에 보다 나은 세상을 선물하겠다며 자신이 가진 페이스북 지분의 99%(약 52조 원)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미 2010년 더기빙플레지(빌 게이츠 등 전 세계 대부호들의 재산 사회환원 약속)에 서명 했지만 사실상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밝힌 그의 결단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다.

더 주목할 것은 재산 기부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대한 그의 장악력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미국은 페이스북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를 제도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 혁신적인 정보기술(IT)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거셌다. 저커버그는 선의의 정책을 악용하지 않고 선의로 답한 셈이다.

저커버그는 현재 400만 주 가량의 ‘클래스 A’ 페이스북 주식과 4억1900만 주 가량의 ‘클래스 B’ 주식을 가지고 있다. 두 종류의 주식은 의결권에서 차이가 난다. 클래스 A는 한 주당 한 표를 행사하는 보통주이지만, 클래식 B는 10표를 행사할 수 있다. 흔히 초다수의결권주(super voting shares)로 불리면서 미국은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IT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허용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2012년 기업공개(IPO) 이전 주식까지로 클래스 B를 한정했다. 이후 클래스 B의 양이 고정된 반면 클래스 A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주주들이 보유한 클래스 A의 비중이 전체의 90%를 초과하지 않는 한 클래스 B를 보유한 페이스북 창업 공신들의 경영권은 보장된다.

특히 페이스북의 회사 정관은 창업자인 저커버그에게 막강한 경영권 방어력을 부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IPO 당시 저커버그가 보유한 클래스 B는 전체 클래스 B의 28%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클래스 B 내에서 57% 가량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가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료들이 자신의 클래스 B에 대한 의결권을 그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회사 정관은 여기에 더해 기업 지배력에 변화를 초래할 거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클래스 B 보유자들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저커버그의 동료가 자신의 클래스 B 지분을 모두 처분하지 않는 한 저커버그의 지배력은 굳건하다는 이야기다.

또한 저커버그가 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1%의 지분만을 남기고 나머지 클래스 B 지분 전부를 처분하더라도 인수자가 초다수의결권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클래스 B가 처음의 주인을 떠나면 자동적으로 클래스 A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물론 저커버그가 99% 지분 모두를 당장 처분하는 것도 아니다. 저커버그의 기부 약속 직후 페이스북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향후 3년간 저커버그가 기부하거나 처분할 주식의 액수는 연간 10억 달러(1조1500억 원) 이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의 과반 의결권을 예견 가능한 장래에 유지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커버그는 생전 장기간에 걸쳐 기부 할 전망이다.

저커버그는 일부 주식을 처분해 마련한 돈을 우선 개인화된 맞춤형 학습, 질병 치료, 사람들 연결하기, 강한 공동체 만들기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저커버그는 딸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에서 “나는 페이스북 CEO로 앞으로 오래 일할 것이지만 이런 이슈들은 너나 우리(저커버그 부부)가 더 나이 들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유한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챈’은 소아과 전문의인 아내 프리실라 챈의 이름을 딴 것이다.

저커버그 부부의 편지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다. 그가 올린 게시물에는 2시간 여만에 ‘좋아요’가 35만 건 달리고 3만6000여 회 공유했다. 명사들은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저커버그 부부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고 기부 공약을 칭송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인 빌 게이츠와 그의 부인인 멜린다 게이츠는 “(소식을 접하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와우 놀랍다’는 것이었다”며 “(저커버그의 딸인) 맥스를 비롯해 오늘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가 알던 세상보다 훨씬 좋은 곳에서 자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이츠는 2010년 더기빙플레지를 통해 840억9000만 달러의 재산 중 자신의 세 아이들에게 각각 1000만 달러씩만 물려주기로 했다. 게이츠 부부가 설립한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자산은 현재 380억 달러 가량이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공에 달렸다 서울지역 공립유치원 신입생 추첨이 이뤄진 2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사가 번호가 적힌 공을 추첨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위해 맞손

네이버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단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모바일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상권 및 관광 활성화와 농특산품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특히 지역의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는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과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지원한다. 해당 교육은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플랫폼 ‘모두(modoo!)’를 활용한 홈페이지 제작과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등을 포함한 ‘O2O(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과정이다.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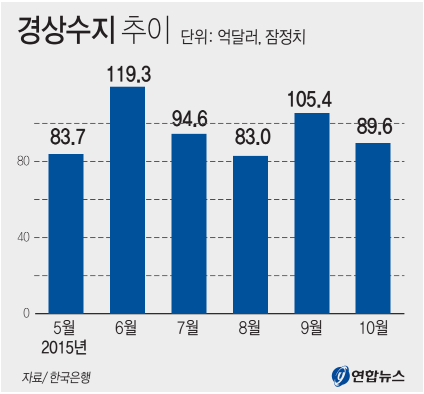
네이버는 강원혁신센터와 모두를 활용한 O2O 교육의 성공을 기반으로 12월부터는 충남과 경북의 혁신센터에서 교육을 시작해 점차 범위를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네이버와 혁신센터 추진단은 ‘모두의 거리’를 통한 지역 상권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우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강원도 내 7개 상권과 5개 전통시장을 ‘모두의 거리’로 지정했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이 모바일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온라인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

‘불황형 흑자’ 연타… 기업들 휘청인다

경상수지 흑자, 최장 기록 경신
수출보다 수입 더 위축된 구조
기업 투자 감소·소비 부진 지적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 2012년 3월부터 44개월째 이어지면서 최장 흑자 기록을 매달 경신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한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10월 경상수지가 89억6000만달러 흑자(잠정)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전월(105억4000만 달러)보다 줄었지만 작년 동월(87억4000만 달러)대비 2억2000만 달러 증가한 규모다.

‘불황형 흑자’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수출 부진과 소비 침체가 지속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의 흑자 기조는 수출과 수입이 함께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결과다. 수입 감소는 기업의 투자 감소와 소비 부진 등을 반영해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1월 수출, 수입이 부진했는데 10월에 이어 수출 물량과 수출 단가가 모두 감소했다”며 “무역수지는 10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사상 최고 수준의 불황형 흑자를 보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국의 경우 생산, 투자 등의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내구재 소비지출 CSI(소비자동향지수)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시기보다는 높지만 세월호 이전보다 낮아 소비절벽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당장 내년 초부터 내수 주도의 경기 회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박옥희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11월 수출 증가율이 지난 달과 비교해 낙폭이 축소됐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출 상대국의 경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승환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교역 조건이 개선되고 우리나라의 무역구조 특성상 수입이 수출보다 더 위축됐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불황형 흑자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10월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7% 가량 하락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대우조선해양

보유헬기까지 매각 경영정상화 총력전

대우조선해양이 지난달 30일 매각한 헬기 시코스키 비행 모습.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정성립)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핵심 자산 매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보유한 헬기를 모두 매각했다고 2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시코스키(14인승) 헬기 2기를 자체 보유, 국내외 주요 인사와 핵심 고객 등 회사를 방문하는 주요 내빈을 수송하는 업무에 사용해 왔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손실에 따른 회사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달 30일 나머지 헬기 1기를 국내 기업에 추가로 매각함으로써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앞당기는데 주력하고 있다.

향후 대우조선해양은 회사를 방문하는 주요 내빈은 VIP버스를 이용해 수송한다는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이 같은 결정은 대외업무용 헬기까지 매각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 ‘회사가 발표한 고강도 자구안을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주변의 평가를 얻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明 "원화 기축통화 1순위" "재생에너지 비중 꼴찌" 暗

〈블룸버그〉 〈국제에너지기구, OECD 중〉

대한민국의 빛과 그림자

5년뒤 SDR 편입통화 결정에 점진적 원화 국제화 추진 계획

사용 비중 제자리걸음 큰 문제로 '에너지 확산 노력 부족하다' 비판

지난달 29일 오후 그린피스 활동가와 시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한 기후 변화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 청계광장을 출발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는 어디이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의 비교는 필수다. 현재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빛과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어느 분야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앞서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한참 뒤처져 있다. 2일 나온 한국에 대한 평가 중 한국의 원화가 중국 위안화 이후 기축통화 후보 1순위라는 소식은 빛이다.

반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25년간 1.1% 제자리에 머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는 소식은 우리에게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다음 기축통화 1순위는 한국의 원화"

미국의 블룸버그는 이날 "한국 원화는 수출 랭킹으로만 보면 중국 위안화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 편입을 검토할 대상 1순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그 다음으로는 싱가포르 달러와 캐나다 달러를 꼽았다.

앞서 IMF는 지난달 13일자 문서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통화들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어떤 통화가 가능성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IMF 규정에 따르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특정 통화의 SDR 바스켓 편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한 나라의 재화·서비스 수출 규모가 커야 한다. IMF는 '사용 편의성'에 대해 '폭넓게 사용'되고 '폭넓게 거래'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전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현물 시장 거래량, 파생상품 시장 거래량, 적절한 시장 기반의 금리 상품 보유 여부 등의 구체적 기준이 있다. 통화의 바스켓 편입을 결정할 때에 이런 기준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으며 판단이 필요하다고 IMF는 설명했다.

위안화는 4가지 주요 금융 관련 기준에서 상위 5위에 들지는 못했다. 하지만 IMF는 보고서에서 위안화의 사용이 최근 현저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화를 비롯해 싱가포르와 캐나다 달러도 IMF의 세부 기준으로는 아직 상위권에 있지 못한 상황이다. IMF는 다음 SDR 편입 통화 결정을 5년 뒤에 할 예정이다.

아직 한국 원화의 SDR 바스켓 편입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 정부는 내년에 중국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는 등 점진적으로 원화 국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 재생에너지 비중 OECD 최하위

기후변화는 위안화의 SDR 편입 못지않게 지구촌의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 수준에 한참 못 미쳤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15 재생에너지 정보'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차에너지 총 공급량(TPES)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1.1%로 잠정 집계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최하위였으며 회원국 평균(9.2%)에 크게 못 미쳤다.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는 태양광(열), 풍력, 수력, 조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을 일컫는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량 가운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의 비중에서도 1.6%로 최하위였다.

한국은 1차에너지 총 공급량 가운데 석유(35.6%)와 석탄(30.5%)의 비중이 특히 높았으며 천연가스(16.3%), 원자력(15.4%), 재생에너지(1.1%), 기타(1.1%) 등의 순이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에너지가 72.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수력(12.2%), 풍력(3.6%), 태양광·조력(7.4%), 지열(4.0%)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은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성 위주로 값싼 원자력이나 석탄화력발전을 대폭 확대해 왔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1990년(1.1%)부터 25년간 제자리걸음만 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독일은 1990년까지만 해도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한국과 비슷했는데 지난해 26.2%까지 올라갔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산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원자력과 석탄으로 전력을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재생에너지는 부가적으로 다룬다고 지적한다. 정책을 입안하더라도 실질적인 액션플랜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벼랑 끝에 선 '헤지펀드'

헤지펀드 규제 강화·자금규모↓ 실적 악화에 연이은 폐업 확산

세계 최대 헤지펀드 중 하나인 영국의 블루크레스트 캐피털이 실적 악화가 이어지자 외부 고객의 투자금을 모두 돌려주고 앞으로 고객 돈을 운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루크레스트의 창업자인 마이크 플랫은 1일(현지시간)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블루크레스트는 앞으로 파트너와 직원 등의 자금만 운용하겠다"며 투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통보했다. 헤지펀드 사업을 접겠다는 이야기다.

플랫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는 "펀드의 명목 위험 수준은 기관 투자자들의 위험 성향에 의해 제약되고 있다. 우리는 이를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펀드를 20년 전에 업계가 그랬던 것처럼 운용하고 싶다. 위험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영국에서 시작한 블루크레스트는 2009년 45%에 이르는 등 막대한 이익을 기록했다. 2012년에는 운용자금이 36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투자 환경이 악화되면서 운용자금 규모가 계속 감소해 80억 달러로 줄었다. 2013년에는 손실을 냈고 올해 10월말 기준 수익률은 -0.2%를 기록했다.

어려움에 처한 곳은 블루크레스트만이 아니다.

데이비드 아인혼이 이끄는 그린라이트 캐피탈은 지난 10월 연초 이후 17%에 달하는 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빌 애크만이 운용하는 퍼싱스퀘어 캐피탈 매니지먼트 역시 올들어 13%의 손실을 기록했고, 마이클 노보그라츠의 포트레스 인베스트먼트 그룹 역시 같은 기간 17%의 손실을 냈다. 이 밖에 숀 파헤이와 마이클 플라트 등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수익률 측면에서 일제히 쓴 맛을 봤다.

저금리 여건에서 대표 매크로펀드의 부진한 실적이 이어지고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하면서 위험투자가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는 스위스 프랑화부터 지난 8월 중국 위안화까지 주요 통화 역시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숨통을 조였다.

상품시장도 마찬가지다. 유가와 함께 주요 금속 원자재가 일제히 폭락한 데 따라 일부 헤지펀드는 계열 자산운용사를 폐업했다. 카길의 블랙 리버 애셋 매니지먼트와 칼라일 그룹의 버밀리온 애셋 매니지먼트가 이에 해당한다.

WSJ는 점점 더 많은 헤지펀드가 다양한 이유로 고객의 투자금 운용을 중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에는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조지 소로스가 소로스 펀드매니지먼트에서 더이상 외부 고객의 투자금을 운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조처였다.

/송병형 기자

등돌린 美·EU… 21년만에 정반대 통화 행보

유럽, 부진한 회복 속에 '양적완화' 미국, 고용지표 개선에 '금리인상'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회의 도중 고민에 잠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유럽과 미국의 통화정책이 독일 통일 이후 21년만에 처음으로 다른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했다.

2일 국제금융센터와 크레디스위스(CS)에 따르면 유로존이 창설되기 전 유럽을 대표했던 독일은 1994년 5월 기준금리인 재할인율 금리를 연 5.00%에서 4.50%로 0.50% 포인트 내렸다. 그러나 같은 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연방기금금리를 연 3.75%에서 4.25%로 0.50% 포인트 올려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독일은 통일 이후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다 경기가 부진에 빠지자 그해 1월부터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섰다. 1994년 1월 5.75%였던 독일 기준금리는 5월 4.50%까지 하락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당시 앨런 그린스펀이 이끌던 연준이 1994년 1월까지 동결기조를 유지하다 2월 3.0%였던 기준금리를 3.25%로 인상하며 인상 기조로 돌아섰다. 이후 매달 0.25% 포인트씩 인상하다 5월 들어 한달만에 0.50% 포인트 올린 후 1995년 2월까지 인상 기조를 유지했다.

이런 모습은 올해 12월에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22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예금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을 포함해 가능한 책무 안에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드라기 총재는 최근 몇 주간 유로존의 경제회복세가 25년만에 가장 약한 수준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ECB가 마이너스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게 거의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유로존 경제가 극도로 부진한 회복세로 자신감이 사라지고 저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아 영구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FT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기둔화로 유로존의 경제가 회복세에서 탈선할 조짐이라며 ECB가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예치금리를 현행 -0.2%에서 최소 0.1%포인트 이상 내릴 게 거의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비관주의로 투자를 꺼리면서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게 ECB의 지적이다. 수요도 ECB가 2%인 물가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너무 약한 수준이다.

반면 미국 연준은 오는 15~16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 금리선물시장은 연준이 12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74%로 반영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92%의 전문가들이 12월 금리 인상을 점쳤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해왔던 연준으로서도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연준 내에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아직 존재한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내년 말까지 1% 이하로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달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진 인물이다.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도 점진적 금리 인상을 주문했다. 그는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실시하는 가운데 연준만 금리를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병형 기자

빨라진 세대교체… 60년대생 CEO 전진배치

LG·삼성 인사 담긴 의미

CEO역할 조정·신사업 고심
현대차·SK·롯데도 심사숙고

LG그룹으로 시작된 주요 그룹의 연말 인사가 중반부로 넘어가고 있다.

올해 주요 기업의 인사 방향을 살펴보면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생존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의지가 엿보인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LG와 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이달 1일 삼성과 GS그룹 등이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지금까지의 주요 그룹 인사를 보면 신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최고경영자(CEO)의 역할 조정이나 상대적으로 젊은 인재를 전면에 내세운 세대교체가 눈에 띈다.

가장 먼저 인사를 실시한 LG는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을 지주사인 ㈜LG의 신성장사업추진단장으로 이동시키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겼다. 소재부품, 자동차부품, 에너지 등 그룹 차원의 신성장동력을 찾아내고 관련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는 역할이라는 게 LG 측 설명이다.

또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의 후임에는 LG화학 배터리사업을 진두지휘하던 권영수 사장을 부회장으로 앉혔다. LG디스플레이와 LG화학에서 자동차 배터리 OLED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은 권 신임 부회장은 '만년 3위'인 LG의 통신사업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이끄는 임무를 맡게 됐다.

현대중공업도 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정기선 상무가 30대 중반에 전무로 승진하는 등 세대교체에 속도를 냈다. 신규 상무보 선임자 57명 가운데 40대가 거의 절반인 28명을 차지할 정도로 지속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삼성도 주력사업 리더의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주요 부문 대표를 그대로 유임 조치했지만 겸직을 떼고 기존 사업에 변화를 줄 리더를 새롭게 발굴했다.

고동진 사장 내정자가 대표적이다. 갤럭시의 총책임을 맡은 고 사장은 갤럭시S6, 갤럭시노트5와 삼성페이의 개발을 진두지휘한 공로를 인정받아 IM부문 사장으로 발탁돼 무선사업부를 맡아 삼성 무선사업의 제2의 도약을 이는 중책을 맡게 됐다.

홍원표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장 사장은 삼성SDS 솔루션사업부문 사장으로 보임해 삼성SDS가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솔루션 사업을 조기 전력화하고 솔루션·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 임무를 부여받았다.

아울러 지난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를 맡아온 고한승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켜 새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에 무게를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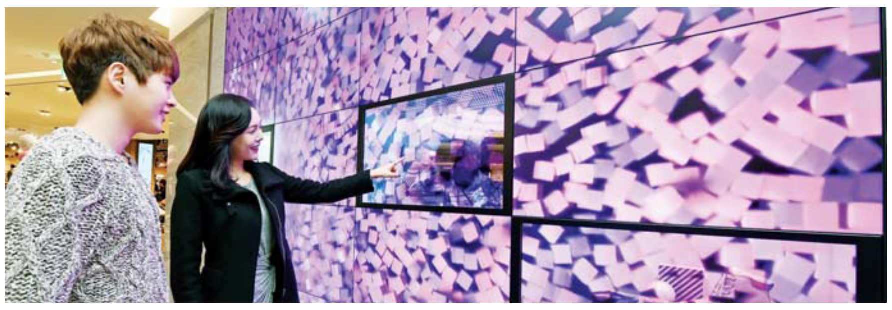
5대 그룹 중 앞으로 남은 현대차와 SK, 롯데의 인사 역시 세대교체 바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중국 토종업체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중국사업부문의 경영진 인사를 먼저 단행했다. 연말에는 새로 론칭하는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위한 개발부서 등의 승진 인사가 전망된다.

SK그룹도 소폭 인사가 예상되지만 일부 계열사 CEO의 경우 재신임을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세대교체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연말 인사에서는 장기 불황 속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그룹들의 고민이 엿보인다"며 "앞으로 이어지는 다른 그룹들의 인사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삼성전자 모델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를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디지털로 쇼핑 라이프 완성

다양한 업종에 스마트 사이니지 설치

삼성전자가 업종을 넘나들며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8월 개장한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디지털로 완성된 쇼핑 라이프'라는 테마로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 160대가 건물 전체에 설치됐다.

4층 패션매장에 20개의 스마트 사이니지로 비디오월을 구성했으며 그 중 일부에는 투명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제품과 영상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쇼케이스로 구성했다. 지하 1층 식품관에 고객 동선을 따라 천장을 흐르듯이 설치된 51대의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는 단순한 인테리어의 역할을 넘어 마치 미술관에서 미디어 아트를 관람하는 듯 한 느낌을 준다.

또한 삼성전자는 디저트 카페 설빙 매장에 50여 개의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를 설치했다. 설빙은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에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새로운 마케팅 기법과 광고를 시연 중이다. /정은미 기자

현지시간 1일 미국 뉴욕 그랜드 센트럴역의 LG전자 올레드 TV 전시 부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올레드 TV로 상영하는 미디어아트를 관람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 뉴욕서 '올레드 TV 로드쇼'

연말까지 그랜트 센트럴역

LG전자가 연말까지 뉴욕 맨해튼의 랜드마크인 그랜드 센트럴역에서 '올레드 TV 로드쇼'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랜드 센트럴역은 유동인구가 하루 평균 70만 명에 이르며, 전 세계의 방문객이 몰려든다. LG전자는 올 연말까지 이곳에서 미디어 아트를 상영하며 방문객들에게 올레드 TV를 소개할 계획이다.

'올레드 화질에 도전하라'는 주제로 LG 올레드 TV와 LCD TV의 화질을 비교해 보여준다. 올레드 TV의 장점인 완벽한 블랙, 우수한 색 재현력, 초슬림 디자인 등으로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LG전자는 TV CF뿐 아니라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LG 대형 광고판 등을 통해 올레드 TV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에 미국 유력 IT 전문 매체인 리뷰드닷컴은 최근 65형 LG 울트라 올레드TV(모델명: 65EF9500)를 '올해 최고 TV'와 '최고 4K TV'로 선정하기도 했다. /정은미 기자

코오롱 2016년 정기 임원인사

장희구
코오롱플라스틱 부사장

이규호
코오롱인더스트리 상무보

장희구 부사장·이규호 상무보 과감한 인재기용… '혁신' 역점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의 장남 규호씨가 코오롱인더스트리 임원으로 임명됐다. 〈관련 인사 17면〉

코오롱그룹은 2일 코오롱플라스틱 장희구 대표이사 전무를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이규호 코오롱인더스트리 부장을 상무보로 승진시키는 등 201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코오롱 윤광복 상무와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성락 상무가 전무로 승진하는 등 전무 7명, 상무 6명의 승진 인사를 했다. 이웅열 회장의 장남 이규호 코오롱인더스트리 부장을 포함 15명은 상무보로 새로 임명됐다.

그룹 관계자는 "실행으로 결과를 만들어야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인사였다"며 "조직 안정을 추구하면서 변화가 필요한 분야에는 실행력 있는 인재를 과감히 기용해 혁신을 주도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또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의 패션2본부장 한경애 상무보는 상무로, 프리미엄패션사업부 서혜욱 부장은 상무보로 승진했다. 코오롱 그룹은 지난 2010년 이래 매년 1~2명씩의 여성 임원 신규 임용과 승진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대졸 신입사원 선발 시 여성인력을 30% 이상 뽑는 등 지속적으로 여성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 리더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11월에도 'MK式 현지화' 빛났다… '글로벌 빅5' 무난

美, 한달간 6만여대 팔아
1년전대비 실적 12% 껑충

中선 준중형·SUV 강세로
역대 2위·18만대 판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결단의 승부사'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철저한 현지화 전략' 효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

올 3·4분기 565만대 판매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8.6%를 기록한 현대기아차가 11월까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 가고 있다. 올해도 글로벌 '톱5' 수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달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작년 같은 달보다 12% 늘어난 판매실적을 올렸다. 1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이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11월 한 달간 6만7대를 팔아 전년 동월보다 11.8% 증가했다. 주력 차종인 쏘나타는 9.6% 판매량이 감소했으나 엑센트,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 벨로스터 등 소형차 삼총사가 32% 증가했고 투싼은 90% 증가한 6906대나 팔렸다.

데릭 하타미 현대차 미국법인 부사장은 "양호한 경제 상황과 저유가, 크로스오버 재고 개선으로 역대 최고의 11월을 경험했다"면서 "투싼 판매량이 2배가량 늘었으며 다른 제품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11월에는 중국 시장에서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월간 판매기록을 달성했다. 현대·기아차는 11월 중국에서 18만159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11.5% 늘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18만2876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기아차는 2002년 중국 진출 사상 첫 7만대 벽을 돌파하며 월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고, 현대차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리며 2개월 연속 10만대를 돌파했다.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동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8개월만이다. 극심한 경기 침체와 현지 업체들의 저가공세를 딛고 양사 모두 다시 성장세로 돌아선 것이다. 전월 대비로는 8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현대차는 랑동(아반떼 MD), ix25, 신형 투싼, 기아차는 K2, KX3, 스포티지R 등 총 6개의 차종이 중국 시장 출시 이후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며 준중형 및 SUV에서 강세를 보였다.

정 회장은 이달 중순 서울 양재사옥으로 현대·기아차 해외법인장 60여 명을 소집해 이 같은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올 한해 지역별 실적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 생산·판매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해외법인장과의 자리를 마련해왔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출시한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과 내년에 출시할 신차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흥시장 경기 침체와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깊은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실적은 올해 11월까지 719만대로 집계됐다. 올해 초 목표량으로 세운 820만대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예비 창업자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청년들, 기업가 정신 없어"

한국무역협회

IT분야보다 생계형 창업에 관심

우리나라 청년들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창업 의지가 부족하고, 창업을 하더라도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기술(IT)분야보다는 생계형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일 발간한 보고서 '한·중·일 청년창업, 중국 열풍, 일본 미풍, 한국은…'을 통해 우리나라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3국의 대학(원)생 534명 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청년 40.8%가 창업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지니는 것에 비해 한국은 응답자의 6.1%만이 창업을 선호했다. 한국 청년들이 창업을 희망하는 이유 역시 취업의 어려움(한국: 30.2%, 중국: 10.7%, 일본: 9.1%)이 가장 높게 나타나 창업을 취업의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희망 업종 역시 생계형·저부가가치 창업인 요식업(31.3%)에 집중돼 IT분야(20.1%)에 많은 관심을 보인 중국 청년들과 대조됐다.

한국 청년들은 창업에 있어 실패에 대한 위험 부담(38.0%)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창업을 희망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32.4%만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46.2%)과 일본(25.8%) 청년들은 창업 아이템이 없는 것을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청년들은 생계형·저부가가치 창업에 관심이 편중되어 있고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돼 경쟁력 있는 청년 창업생태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분석했다.

청년 창업 선호도가 높은 중국은 대학을 중심으로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창업 전 과정이 연계를 이루고 있다. 칭화대는 활발한 산학연계로 100개가 넘는 자회사를 설립하며 대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고, 북경대의 경우 창업 트레이닝 캠프를 열어 창업 멘토링과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의 김보경 연구원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도전적인 태도로 창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우수 창업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세단같은 승차감에 폭발적인 퍼포먼스 갖춰

YG의 카톡 car talk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GLE'

코너링 시 핸들링 민첩·롤링 없어
고급스러운 외관에 스포티함 더해
9단 변속기·상시 사륜구동시스템 적용

메르세데스-벤츠의 스포츠유틸리티(SUV) '더 뉴 GLE'는 첨단 주행 기술과 안정성, 고급스러움을 갖췄다. 메르세데스-벤츠가 자사의 프리미엄 SUV 'M클래스' 탄생 이후 20여년 만에 선보인 '더 뉴 GLE'는 SUV의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춘 모델이다.

지난 1일 전북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진행된 시승행사에서 '더 뉴 GLE 350d'를 체험해 봤다. 무주 덕유산 리조트를 출발해 무주호를 지나 적상산 전망대 중턱에 있는 머루와인동굴을 돌아오는 총 25㎞구간의 코스를 주행했다.

처음 컴포트 모드에서 주행하니 마치 세단을 타고있는 것처럼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승차감이 전해졌다. 리조트를 빠져나온 뒤 도로에 진입해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자 강력한 추진력이 전해졌다. 짧은 구간이었지만 '더 뉴 GLE'가 안정성과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갖춘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 무주리조트의 스키장 일대 높은 오르막 도로와 머루와인동굴까지 굽이굽이 전개된 오르막길에서는 '더 뉴 GLE'의 최고출력 258마력의 성능을 체감할 수 있었다. 코너링을 할 때 핸들링은 민첩했고 부드러웠으며, 롤링(차가 좌우로 쏠리는 현상)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이는 앞뒤 액셀에서 토크를 50대 50으로 나눠 사용하는 4륜 구동 시스템의 장점 덕분이다. 다만 오프로드 성능을 직접 테스트해볼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디자인은 중앙 부분의 돔 형식 본넷과 세련된 범퍼는 SUV차량이 갖추어야 할 특유의 디자인을 한층 더 고급스럽게 표현했다. 범퍼 하단 공기흡입구는 이전보다 넓어졌다. 라디에이터 그릴의 큼직한 홀 패턴은 공격적이고 거친, 스포티함이 묻어났다.

후면의 테일램프와 뒷 범퍼의 모습은 매우 새롭다는 느낌을 준다. 배기구 또한 좀더 세련되고 스포티한 모습으로 변했다. 실내는 3-스포크 스티어링 휠, 계기판과 7인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세련미와 편의성을 함께 갖췄다.

한편 '더 뉴 GLE'는 친환경 디젤 엔진에 자동 9단 변속기와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 4MATIC을 적용한 '더 뉴 GLE 250d 4MATIC'과 '더 뉴 GLE 350d 4MATIC' 2개의 디젤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고성능 AMG 가솔린 엔진에 AMG 스피드시프트 멀티 클러치 7단 스포츠 변속기, 퍼포먼스 중심의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한 고성능 모델인 더 뉴 메르세데스-AMG GLE 63 4MATIC 모델도 있다. '더 뉴 GLE'는 내년 1월 국내 출시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JS대부2015서울금천-00029(대부업)
현금없이 사는 차
(당일출고)
만 20세 이상 누구나 가능
차 + 취.등록세 + 보험료 모두 현금없이 당일 출고!
그리고 추가로 여윳돈 1,000만원도 당일 같이 드려요~ (전국)
저신용자 OK! 무직자 OK! 당일출고 OK!
아시아캐피탈 1833-7475
월00%연34.9%이내(연체이자포함)추가비용無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불법 입니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 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9층(가산동,뉴티캐슬)서울 금천구청 경제일자리과02-2627-1312

아시아나, 국제선 전 노선 '수화물 갯수' 제한

연계운송 시 고객 혼선 줄일 수 있어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2016년 1월 1일(발권일 기준)부터 국제선 전 노선의 수화물 규정을 '피스제(Piece System)'로 일원화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그간 국제선 위탁수하물 운송에 '피스제(미주 노선)'와 '무게제(미주 외 지역)'를 혼용해 운용해 왔으나 이번 규정 변경 후 '피스제'로 일원화해 운용된다.

이는 '피스제'가 전 세계 공항 자동화 시스템과 더욱 부합함은 물론, 외항사와 연계수속 효율성을 높여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무료 위탁수하물 변경〉

구분	현행(무게제)	변경(피스제)
퍼스트석	40KG	3PC(PC당 32KG)
비즈니스석	30KG	2PC(PC당 32KG)
일반석	20KG	1PC(PC당 23KG)

미주 外 지역

특히 현재 전 세계 유수의 항공사와 스타얼라이언스 소속 회원사 대부분이 피스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규정 변경으로 항공사 간 다른 수하물 규정으로 인해 연계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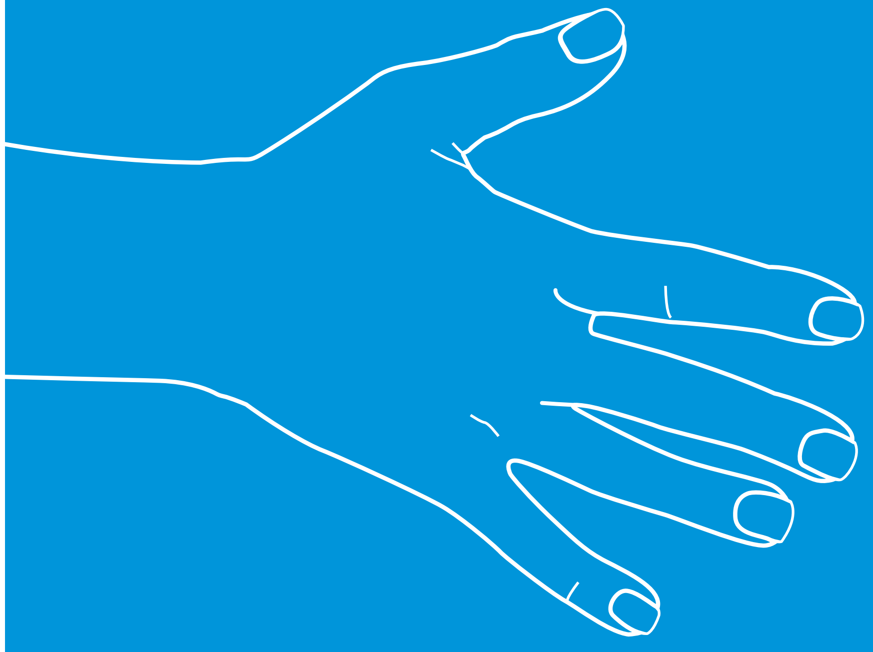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규정 변경에 발맞춰 초과수하물 운임 적용 구간을 ▲비행시간 90분 이내 노선 ▲일본, 중국, 대만, 홍콩/마카오 노선(비행시간 90분 이내 노선 제외) ▲동남아, 서남아, 극동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노선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노선 등 총 4개 구간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운송 거리에 따른 징수 기준을 보다 합리화했다.

/양성운 기자

Beyond the First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5196호(2015.07.28~2016.07.27)

이기는 사람에겐 노하우가 있다



이기는 연금으로 시작하세요

꼬박꼬박 오르는 물가걱정을 이기는 연금
불확실한 미래를 이기는 연금
은퇴 후에도 당신의 씀씀이를 이기는 연금
지금 당신은
노후의 자금걱정을 이길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라면 이기는 연금을 시작하세요
국내최대증권사* NH투자증권이 선보이는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
수익률이 높은 연금이 당신을 이기게 합니다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

*총자산 1위, 자기자본 1위 / 2015년 3월 금감원 공시기준

상담만 받아도 **마음든든**, 티볼리로 **행운든든**

NH투자증권 백세든든연금 EVENT

행사기간 : 2015. 7. 1 ~ 11. 30 | **대상상품 :**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 IRP | **대상고객 :** 신규, 기존 가입고객 및 이전고객

EVENT 1 마음든든! **상담 이벤트**

연금저축계좌, IRP 상담 후 계좌 개설만 해도 사은품 즉시 증정

(택일) 혼합7곡 | 주방세제 | 우산

*지점당 한정수량, 선착순 1만명

EVENT 2 두손든든! **가입 및 이전 이벤트**

연금저축계좌, IRP 가입 및 이전 고객에게 금액별 백화점 상품권 증정

조건	혜택
3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1만원권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3만원권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만원권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0만원권
1억원 이상	30만원권

EVENT 3 기분든든! **적립식 가입 이벤트**

연금저축계좌, IRP를 통해 신규 적립식 가입 고객 중
20만원 이상 매수하고, 3년 이상 이체 약정시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증정

EVENT 4 행운폭발! **티볼리 추첨 이벤트**

EVENT2 대상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자동차 티볼리 증정
➡ 최초 300만원 입금시 추첨권 1매 부여,
1천만원 돌파시 2매+1천만원 당 추첨권 추가1매 지급

※ 5만원 초과 경품 수령시 22% 제세공과금은 고객 부담 ※ 추첨 이벤트 사은품 티볼리는 TX A/T급으로 차량가격에 한하며, 취등록세는 당첨자 부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후 5년 이상 유지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한도 내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되며,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본 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상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세율은 납세자의 상황에 다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www.nhwm.com

고객지원센터 1544-0000 NH투자증권

SK텔레콤 'CJ헬로 인수' 미래 청사진 발표

"미디어고도화에 5조 투자… 글로벌플랫폼 사업자 도약"

고객편익·통신-미디어 융합 선도
7.5兆 생산·4만 여명 고용 유발
유망 콘텐츠 글로벌진출 지원도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SK텔레콤 본사 사옥에서, SK텔레콤 이형희 MNO총괄이 CJ헬로비전 인수와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통한 기대 효과와 미래 청사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통해 국내 미디어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신과 미디어 융합을 선도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합병법인은 향후 5년간 케이블망 고도화, 양방향 지능형 네트워크 구현 등 미래형 인프라 고도화에 5조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기자수첩 17면〉

SK텔레콤은 2일 서울 을지로 소재 SK텔레콤 본사 사옥에서 설명회를 갖고,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통한 기대 효과와 미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SK텔레콤의 이형희 MNO총괄은 "새롭게 출범하는 합병법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해 문화·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고, 투자 활성화 및 생태계 발전을 선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객의 편익을 증대하고,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글로벌 무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통신·미디어 산업이 가입자 유치 위주의 양적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 중심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냉철한 상황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OTT(Over The Top)를 뜻한다. 사업자들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 미디어 사업자들은 대규모 인수·합병 등 합종연횡을 통해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OTT란 통신·방송 사업자가 아닌 제3의 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나 영화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이에 SK텔레콤은 '융합' '혁신' '공생'을 새 출범하는 합병법인의 핵심 가치로 삼고 ▲통신·미디어의 '융합'을 통한 국내 미디어 산업의 신성장동력 강화 ▲융복합 미디어 플랫폼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미디어 생태계와의 '공생'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합병법인은 향후 5년간 5조원 가량을 ▲디지털 전환, UHD 확대 등 케이블망 고도화 ▲양방향 지능형 네트워크 구현 ▲콘텐츠 산업 및 스타트업 지원 등 미래형 인프라 고도화와 미디어 생태계 육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7조5000억원의 생산유발 및 4만8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SK텔레콤은 밝혔다.

합병법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 지향적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서비스와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함해 미디어 소비를 확대시켜 관련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끌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기기별 특성에 맞는 N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마트홈·사물인터넷(IoT)이 연계된 통합 홈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고객 편익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병법인은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MCN(멀티채널 네트워크)와 VOD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유망 콘텐츠를 적극 발굴·육성해 '뽀로로' 프로그램과 같은 성공 사례를 지속 창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콘텐츠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지원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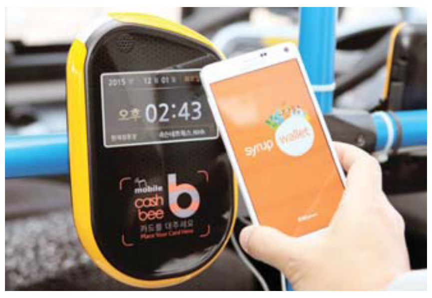
이 밖에도 지역민 참여 방송을 비롯한 지역채널 특화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합병법인이 미디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SK텔레콤은 밝혔다.

이형희 총괄은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글로벌 무한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력을 갖추고,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으로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콘텐츠 강국, 문화 부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모바일 지갑 '시럽 월렛' 교통카드 기능 추가

SK플래닛
이비카드 등과 제휴
내년 초 상용화 계획



SK플래닛은 이비카드 등과 제휴를 맺고 '시럽 월렛'에서 캐시비 충전형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SK플래닛

SK플래닛이 모바일 지갑 서비스 '시럽 월렛'에 교통카드 기능을 담았다.

SK플래닛은 2일 이비카드 등과 제휴를 맺고 '시럽 월렛'에서 캐시비 충전형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시럽 월렛에서 캐시비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대중교통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다.

SK플래닛은 연내 서비스 연동을 위한 개발을 마무리 짓고 이르면 내년 초 상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럽 월렛의 교통카드 기능은 시럽 월렛을 실행하지 않고도 NFC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외에도 교통카드 결제가 가능한 편의점, 음식점, 마트 등 전국 8만여 곳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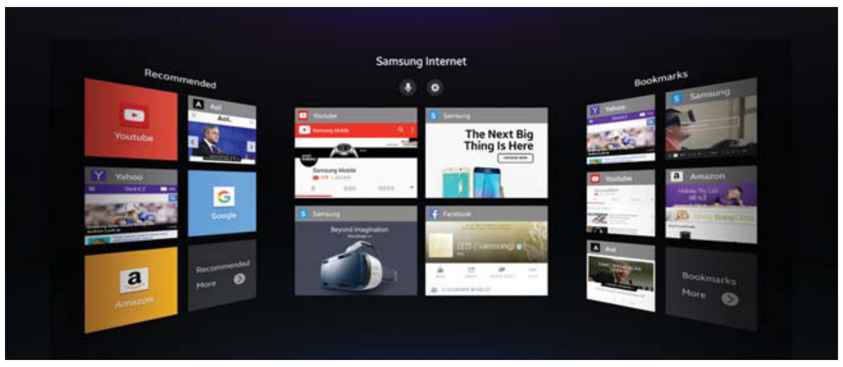
또 교통카드의 충전과 잔액, 이용내역의 실시간 조회는 물론 선물하기·요청하기 기능을 통해 지인이나 자녀, 부모에게 충전금액을 송금 또는 요청할 수도 있다.

SK플래닛은 시럽 월렛 교통카드 이용자를 위해 최대 6%의 교통카드 충전 수수료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또한 SK플래닛의 간편결제 '시럽 페이'와 OK캐쉬백 포인트를 이용한 충전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문경 기자

'기어 VR' 가상현실, 인터넷으로 즐긴다

삼성전자
전용 웹브라우저 베타버전 공개
음성 입력·게이즈 모드 등 지원



삼성전자가 가상현실 헤드셋 기어 VR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웹 브라우저인 '기어 VR용 삼성 인터넷'의 베타 버전을 2일 공개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가상현실 헤드셋 '삼성 기어 VR'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웹 브라우저인 '기어 VR용 삼성 인터넷'의 베타 버전을 2일 공개했다.

기어 VR용 삼성 인터넷은 360도 비디오, 3D 비디오 스트리밍, HTML5 비디오 등 온라인의 다양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영화관의 대형 스크린으로 즐기는 것처럼 생생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콘텐츠를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기어 VR에서 웹 브라우저로 다양한 영상을 검색, 감상할 수 있어 기어 VR의 활용성이 확대된다.

기어 VR용 삼성 인터넷은 음성 입력과 스크린 키보드를 지원해 쉽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손으로 조작하지 않고 메뉴를 응시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게이즈 모드(Gaze Mode)도 지원한다.

또한 액세스, 북마크, 탭 매니저 등 삼성 스마트폰의 웹 브라우저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해 사용자가 기어 VR에서도 편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기어 VR용 삼성 인터넷의 베타 버전은 '오큘러스 스토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영화·미드, 기프트 카드로 선물하세요"

LG유플러스
유플릭스 무비 이용 카드 2종
홈플러스·GS25매장서 판매

LG유플러스는 영화 월정액 서비스인 유플릭스 무비를 감상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홈플러스 매장과 GS25의 전국 9000여개 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월정액 영화 서비스인 '유플릭스 무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전국 홈플러스 매장과 GS25 편의점에서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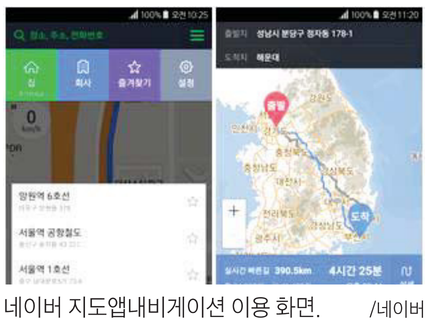
기프트 카드는 7700원 상당의 1개월권과 2만2000원 상당의 3개월권 등 2종이다.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홈플러스 매장에서 이 카드를 구입하면 가격을 20%씩 할인해준다.

LG유플러스 문현일 미디어사업팀장은 "기프트 카드로 더 편하게 2만3000편의 영화와 미국 드라마 등 주문형 비디오(VOD)를 감상할 수 있다"며 "연말 선물용으로 추천한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네이버 지도 앱으로 길 안내까지

내비게이션 기능 탑재
안드로이드 우선 적용



네이버 지도앱내비게이션 이용 화면. /네이버

네이버는 모바일 이용자들에게 보다 생생한 지도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도앱 내에 내비게이션 기능을 탑재했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 지도앱은 장소검색에서부터 대중교통, 자동차 빠른길 찾기, 거리뷰, 항공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월 이용자 수 1000만 명이 넘는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도지역 서비스다.

이번 지도 앱에 내비게이션 탑재로 이용자들은 가입 통신사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PC·모바일 등 어디에서나 즐겨찾기 해 둔 장소를 모바일 지도 앱에서 바로 장소를 적용해 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네이버는 추후 내비게이션에 음성검색, 주변검색뿐 아니라 차량 단말기와의 미러링을 지원하며 다가오는 커넥티드카 시대에서도 네이버 지도앱으로 편리한 운전 경험을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도 앱내 내비게이션 탑재는 안드로이드 버전에 우선 적용되며, iOS 버전은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정문경 기자

KT
모바일 전용 영화 월정액 '올레tv 프라임무비팩' 출시

KT는 모바일 TV 서비스인 '올레tv모바일'을 통해 모바일 전용 영화 월정액 '프라임무비팩'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프라임무비팩은 스마트폰으로 최신 인기 영화와 미국드라마 1만3000여편을 한 번 결제로 한 달 내내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극장 개봉 6주 내외의 최신영화도 라인업에 포함됐다.

올레tv모바일 서비스는 통신사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다. KT는 1일부터 가입한 스마트폰 이용자는 누구나 올레tv모바일의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전용 프라임무비팩 출시를 기념해 KT는 내년 11월 30일까지 서비스에 가입하면 이용료 8900원에서 1000원 할인해 제공한다. 더불어 프라임무비팩 최초 가입 첫 달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준다.

/정문경 기자

경남銀 대신 생보·캐피탈 인수… 맞수 BNK와 맞대결

〈BNK금융지주〉

지방금융지주 돋보기

❷ DGB 금융지주

상반기 지주사 중 최고자산 증가율
은행-보험-리스 잇는 서비스 위해
'비은행 강화로 몸집불리기' 본격화

DGB금융지주는 올 상반기 국내 은행지주사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11월 기준 총자산은 5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6% 증가했다. 누적 순이익도 2816억원으로 같은 기간에 40.2% 늘었다. 최근에는 생명보험회사를 인수하는 등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며 몸집 불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DGB지주의 전신인 대구은행은 지난 1967년 '최초의 지방은행'이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자본금 1억5000만원으로 시작한 대구은행은 설립 44년 만에 지주사로 전환해 부산은행에 이어 지방 종합금융그룹으로 탈바꿈했다.

당시 '지역밀착형 종합금융그룹'을 내세우며 탄생한 DGB지주는 지역민과 지역기업의 금융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지주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기존의 대구은행을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지주 체제 전환 후에도 지방은행의 설립 취지에 따라 지역과 중소기업을 위한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다"며 "현재도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은행과 지주 포트폴리오의 7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vs 부산은행' 40년 경쟁

DGB지주는 지난 40년간 부산은행과 지방은행의 양대산맥으로 불리며 경쟁해 왔다. DGB금융지주는 지난 2011년 5월 17일 대구은행, 대구신용정보, 카트넷 등 3개의 자회사를 두고 출범했다. 두 달 앞서 부산은행은 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BS지주로 전환해 대구은행은 부산은행에 '최초' 타이틀을 양보했다.

이후 DGB지주는 출범 7개월여 만에 캐피탈사를 인수하는 등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특히 우리금융에서 분리 매각되는 경남은행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BS지주 또한 입찰 의지를 밝히며 전면전이 치러졌다.

대구·경북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DGB지주는 경남은행 인수가 '동남권 DGB 금융벨트' 구축이라는 비전 달성에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3년 1·4분기 기준 DGB지주의 총자산은 35조8000억원, BS지주는 44조8000억원으로 자산 31조여원의 경남은행을 인수하면 지역 금융권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2파전으로 시작된 경남은행 인수경쟁은 지역상공인으로 구성된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와 기업은행까지 가세하며 4파전으로 번졌다.

이에 DGB지주는 우리금융에서 분리 매각되는 또 다른 은행인 광주은행까지 예비 입찰에 응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광주은행까지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DGB는 두 은행 모두 입찰을 포기했다. 지역갈등 해소, 지방은행 상생,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한 결정이었다.

DGB금융지주 대구은행 본점.

그 대신 DGB지주는 경남지역 상공인 중심의 경은사랑 컨소시엄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출자(800억원 규모)를 결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BS지주는 경남은행을 JB지주는 광주은행을 인수하게 됐고, DGB지주는 비은행 부문 강화에 나서며 은행 인수 전쟁이 끝났다.

◆DGB지주, 몸집 부풀리기 진행 중

DGB는 지주 전환 후 1년 만에 2개의 자회사를 편입하며 몸집을 불려 왔다. 특히 경남·광주 은행 입찰을 포기한 후에는 비은행 부문 강화를 위해 보험업 인수에 나섰다. DGB지주는 지난해 9월 우리아비바생명을 인수해 종합 금융그룹으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했다.

DGB지주는 올해 1월 NH농협금융으로부터 사들인 우리아비바생명을 'DGB생명'으로 바꾸고 정식 출범했다. 4조7000억원 규모의 DGB생명 인수를 통해 DGB지주는 그룹 내 비은행 비중이 12%대로 확대됐다. 아울러 지방금융그룹 중 처음으로 보험업에 진출해 다시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또 은행과 보험, 캐피탈 등 자회사를 통한 원스톱서비스 구축으로 지역밀착형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DGB지주는 출범 7개월여 만에 캐피탈사를 인수하기도 했다. 인수 대상은 일본 빅4 대부업체 중 다케후지의 할부금융사인 메트로아시아캐피탈. 이 캐피탈사는 자산 1200억원, 자본금 600억원 규모로 DGB지주의 영업 권역 확대와 몸집 불리기에 큰 역할을 했다. DGB지주는 2012년 1월 캐피탈사의 회사 상호를 DGB캐피탈로 바꾸고 기존 공작기기 등 리스영업 중심에서 벗어나 자동차 할부금융과 소액신용대출 등으로 영업활동 넓히기에 나섰다. 같은 해 4월에는 컴퓨터시스템개발·판매 유지보수 사업을 하는 DGB데이터시스템을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DGB지주는 출범 1년 만에 5개 자회사를 거느리며 총자산 규모 32조원대로 성장했다.

수도권과 해외 진출도 고려 중이다. DGB지주는 서울에 지점 하나를 개점해 총 서울 3곳, 경기도 1곳에 지점이 있다. 해외는 상하이 1곳, 베트남에 사무소 1곳으로 공격적인 진출보다는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개점할 계획이다.

DGB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은행으로서의 영업에 주력하고 인수했던 DGB생명과 캐피탈을 정상화 시키는게 우선"이라며 "비은행부문 강화를 위해 자산운용사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2일 서울 세종대로 신한은행 본점 15층에서 열린 국내최초 신한은행 비대면실명확인 서비스인 써니뱅크·디지털키오스크 시연회에서 조용병 신한은행장(왼쪽 첫 번째)과 써니뱅크 홍보대사인 걸그룹 소녀시대의 써니(가운데)가 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써니뱅크를 이용해 비대면 실명확인 1호 통장을 개설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 비대면 모바일·무인서비스 첫 스타트

써니뱅크·디지털 키오스크 선봬
임종룡 금융위원장, 1호 계좌 개설

신한은행이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를 본격 실시했다. 이달부터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비대면 실명 확인제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 개설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모바일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다.

신한은행은 2일 서울 세종대로 본점 15층 심포니홀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적용한 모바일 전문은행 'Sunny Bank(써니뱅크)'와 무인 스마트 점포 '디지털 키오스크'를 선보이고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연회 행사에서 "대한민국 금융사에 아주 중요한 날"이라며 "바이오 인증시대의 막을 열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위원장이 개별 은행에 와서 축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 결과물을 만들기까지 신한은행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뜻깊은 자리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써니뱅크는 기존 신한은행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모바일 전문은행으로, 국내 최초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영업점 방문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써니뱅크에는 간편성은 높이고 수수료는 낮춘 'Sunny 간편 해외송금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소득추정 기법을 적용해 무서류로 신청 5분 내 승인이 가능한 'Sunny 모바일 간편대출', 스마트워치로 사용하는 뱅킹 서비스인 'Sunny Watch'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탑재됐다.

디지털 키오스크(Digital Kiosk)는 손바닥 정맥 인증방식이 적용된 국내 최초 무인스마트점포다.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입출금 창구 거래량 기준 약 90%에 해당하는 107여 가지의 영업점 창구업무가 가능하다.

또한 화상 상담으로 신분증만 있으면 카드 없이 출금과 이체 외에도 다양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주말에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 부족이나 보안카드 등을 분실해 이체가 불가한 경우에도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업무 처리 후 이체할 수 있다.

이날 시연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써니뱅크를 통해 국내 1호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를 개설했다. 이어서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정맥인증을 통해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OTP카드를 발급했다.

/이정필·채신화 기자 roman@

신한카드, 인도네시아 현지시장 노린다

인도모빌과 손잡고 '신한인도파이낸스' 출범

신한카드가 본격적인 인도네시아 현지사업에 나섰다.

신한카드는 2일 인도네시아 재계 서열 2위인 살림그룹의 자동차 판매 계열사인 인도모빌과 '신한인도파이낸스'를 출범했다.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과 주삭 컬토위조조 인도모빌 사장이 참석했다.

신한카드는 올해 8월 인도모빌의 자회사 MFC(Multi Finance Company)인 '스와달마 파이낸스'의 지분 50%+1주를 인수하고, 10월 현지 금융감독국(OJK)의 인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연초 인도네시아 진출을 결정하고 난 후 10개월 만의 성과다. 짧은 기간 내 합작법인 출범이 가능했던 주요 이유는 양사가 서로 믿고 존중하는 신뢰관계가 높았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신한인도파이낸스는 기존 스와달마 파이낸스가
영위하던 오토바이, 자동차 등 인도모빌과의 협력을 통해 할부 및 리스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이어 신한카드의 전문성을 접목해 신상품 출시와 함께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지 고객에게 대출 한도와 금리 등에서의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카드 상품 동향을 연구해 신용카드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방침이다. 신한카드는 향후 5년간 파이낸스 사업 분야에서 연평균 취급액 성장률 1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위성호 사장은 "이번 합작법인은 단순히 외국계 회사의 인도네시아 금융산업 진출이 아닌 양사가 보유한 우수한 노하우와 성공 경험을 토대로 고객서비스를 제고하고 사회 가치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경영 철학이 담긴 만남"이라며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양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역량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면 이번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신한카드와 인도모빌은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서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왼쪽 세 번째)과 주삭 컬토위조조(왼쪽 네 번째) 인도모빌 사장, 김대영 신한인도파이낸스 법인장(왼쪽 다섯 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양사 합작법인인 '신한인도파이낸스' 출범식을 열었다. /신한카드

해외펀드, 러시아선 '웃고' 중남미선 '울고'

〈수익률 14.05%〉 〈수익률 -26.41%〉

〈해외펀드 수익률〉 (단위:억원, %)

지역/국가	설정액	연초이후
글로벌	29,105	0.06
글로벌이머징	2,474	-9.78
EMEA	275	3.31
브릭스	13,021	-8.80
신흥아시아	2,152	-7.81
친디아	4,607	1.05
중국(홍콩H)	44,788	-5.08
중국본토	34,163	3.91
인도	3,426	1.80
아시아퍼시픽	1,039	5.39
아시아퍼시픽(ex_J)	10,809	1.28
일본	10,467	14.30
유럽	21,762	14.01
신흥유럽	1,843	-2.14
러시아	7,204	14.05
북미	6,550	5.08
중남미	1,911	-26.41
브라질	1,665	-33.37
중동아프리카	302	-14.09

자료=에프앤가이드 1일기준

일본·유럽 수익률 상위권
브라질·중동 상당한 손실
달러 강세 속 각국 경기 탓

올해 해외펀드 수익률이 투자 지역에 따라 연 14.30%를 낸 '대박'부터 마이너스(-) 30%가 넘는 '쪽박'까지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서 출시된 해외주식형펀드 중 러시아 펀드와 일본 펀드의 올해 평균 수익률(지난 1일 기준)은 각각 14.30%, 14.05%로 집계돼 주요 지역 중 1,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유럽 펀드들이 14.01%의 수익률로 이들을 추격했다.

반면 브라질 펀드들은 -33.37%로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은 각각 -26.41%, -14.09%의 수익률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아시아퍼시픽은 5.39%, 북미 펀드들은 5.08%로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는 신흥국 펀드들이 체면을 구겼다.

◆신흥국 펀드 마이너스 수익률

세계 전 지역을 포괄하는 글로벌 펀드는 0.06%인 반면 글로벌 신흥국 펀드는 -9.78%의 수익률을 보여지역별 차이가 극심했다.

이는 올해 일본과 미국 유렵 경제 회복과 신흥국 회복 지연에 따른 달러 강세라는 큰 흐름 속에 각국의 경기가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국제 유가, 원자재 등의 급락으로 인해 신흥국 중에서도 중국·인도 등 자원 소비국과 브라질 등 자원 생산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면서 펀드 성적표도 극과 극으로 나누어졌다.

그간 중국·인도·러시아·브라질 4개국을 브릭스(BRICs)로 묶어왔으나 올해는 이런 분류가 무의미해진 셈이다.

중국은 후강퉁(상하이-홍콩 증시 교차거래) 등 외국인 주식투자 개방과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도 경기 전망이 어두워 상하이종합지수가 6.85% 오르는데 그쳤다.

인도 주가지수는 지난해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외국인 투자가 늘면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최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정치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 펀드 수익률 호조

유가하락에도 러시아펀드는 안정된 수익을 내고 있다. 최근 러시아 증시가 살아나고 있다. IS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덕분이다.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유럽과의 공조로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브라질 펀드 수익률은 3개월 이상 모든 구간에서 손실을 내고 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브라질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진단한다. S&P는 "브라질 경제지표가 계속 악화하고 있다"면서 "단기간 안에 안정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S&P는 지난 9월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투기등급인 'BB+'로 강등하고,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내년에도 각국별 투자 수익률이 천양지차인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경제가 내년에 3.3%, 이듬해인 2017년에는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달러화 강세와 에너지 분야 투자감소를 겪고 있지만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개선으로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올 성장률 전망치가 2.0%에서 2.4%로 올라갔다.

중국은 종전 전망치인 6.8%가 유지됐다.

일본은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만 떨어진 0.6%로 하향조정됐다.

유로존은 저유가와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에 힘입어 기존 1.4%에서 1.5%로 상향조정됐다. 인도는 6.9%에서 7.2%로 올라갔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KB투자증권과 함께하는 자산관리

스마트폰 성장률, 2017년에 정점 도달

⑬ 스마트폰 시장이 저문다

2016년 아이폰 출시 10년
신규 수요↓·교체주기↑
출하량 증가율 둔화

내년은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된 지 10년차가 되는 해이다. 영욕의 10년을 보낸 아이폰이 내년에는 출시 이후 처음으로 출하량 증가율이 한 자리 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의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14억3000만대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7.4% 성장에 그친 15억4000만대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성이 둔화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중국과 미국, 서유럽 등 주요 스마트폰 시장의 보급률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신규 수요가 줄어들고, 스마트폰의 교체주기는 길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 역시 TD-LTE망의 빠른 확산과 중국 로컬 스마트폰 업체들의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급증에 따라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중국 시장의 성장 속도가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지난 3·4분기에는 스마트폰 시장이 2014년 대비 소폭 감소하기도 했다.

2016년의 지역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 측면에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많고 스마트폰보급률이 낮은 아시아·아프리카의 주요 신흥국의 성장성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국가들로는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꼽을 수 있다.

금액 기준의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은 출하량 기준의 성장보다는 더욱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7년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을 신흥국이 주도함에 따라 보급형 스마트폰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ASP (소프트웨어를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지 않고 일정한 요금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임대해 주는 서비스), 즉 평균 판매 가격이 좀 더 가파르게 하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상표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 2팀 선임연구원

KB WM CAST 앱을 통해 자세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안타증권, 파생결합증권 3종 공모

유안타증권은 4일까지 다양한 조건과 수익구조로 설계된 ELS 3종을 총 13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ELS 3474, 3475, 3476호는 만기 3년의 스텝다운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ELS 3474호는 HSCEI지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각 최초기준가격의 87%(6,12,18개월), 82%(24,30,36개월) 이상인 경우 연7.80%의 수익률로 조기 또는 만기상환된다. 또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기간 동안 최초기준가격의 55% 미만으로 한번이라도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23.40%(연7.80%)의 수익률로 만기상환된다. (1588-2600) /유안타증권

SC은행 특별퇴직 대상 임·직원 총 961명 확정

한국SC은행은 2일 특별퇴직 임직원 961명을 확정했다. 이는 9월 말 기준 전체 임직원(5300명)의 18% 규모다.

SC은행은 퇴직 예정일인 오는 15일 기준 만 4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신청을 받았다.

특별퇴직하는 임직원은 법정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특별퇴직금(월고정급 기준)은 근속기간에 따라 32~60개월분을 받는다. 또 재취업 및 창업 지원금으로 2000만원, 자녀 학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을 별도로 받는다.

SC은행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특별퇴직 형식으로 인력 감축을 진행해 왔다.

이번 특별퇴직은 SC그룹의 글로벌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것으로 노사 협의를 거쳐 시행했다. 지난달 초 SC그룹은 2018년까지 직원 1만5000명을 감축하겠다는 자구계획을 발표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거래소, 보호예수제도 장벽 낮춰

한국거래소가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매각제한) 면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동의가 없어도 호텔롯데의 상장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보호예수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유 지분에 관계없이 소재 불명이거나 최대주주와 이해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보호예수의무가 면제된다.

현재 거래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을 일정기간(6개월) 매각을 제한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보호예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5% 미만 특수관계인에 한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예수의무를 면제해왔으나 이번에 이를 5%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인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김문호 기자

대형 운용사, 도 넘은 '모럴 해저드'

신한BNP운용 직원 검창 조사
"개인 비리일 뿐 조직적 범죄 아냐"
처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대형 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의 부정부패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국내외 금융기관 펀드매니저들이 금품을 받는가 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에 가담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자산운용업계는 최근 적발된 일련의 사건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일부 사례가 업계의 구조적 비리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연이어 터지는 도덕적 해이

2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소속 펀드매니저인 박모(35)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차장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주식리서치팀에서 IT 담당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중순께 주가 조작 세력으로부터 '디지텍시스템스'의 주식을 매입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차장에게 주가 조작을 청탁한 3명은 이미 구속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현재 수사를 받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는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여의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서 박 차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개인 컴퓨터에서 당시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 등 자료를 복사해 갔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금품수수가 벌어진 일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압수수색도 회사가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자산운용사 여러 곳을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로 수익을 올린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한미약품 임직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로 이어지는 부정한 공생관계가 드러난 것이다.

한미약품은 올해 3월 18일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와 자사가 개발 중인 면역질환치료제 'HM71224'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라이선스·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개발 성공시 계약금과 기술료(마일스톤)만 7800억원으로 추산돼 단일 기술수출 계약으로는 국내 제약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호재성 정보이지만 한미약품의 주가는 이 발표가 있기 며칠 전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부터 계속해온 수사에서 외국계 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7명과 금융브로커 등 총 14명을 적발해, 그중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돼야

자산운용사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 업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일부 '펀드매니저'들의 개인적인 탐욕에 의한 범죄가 업계에 만연한 구조적 비리로 확대해석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국내 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사건들은 개인 비리일 뿐 업계에 만연한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다"라며 "물론 그들의 행동은 잘못됐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집단에서나 이러한 개인 비리가 완전히 근절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내부 감시와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아무리 철저히 내부 통제를 해도 탐욕에 눈먼 개인의 비리를 뿌리 뽑기는 어렵다는 항변이다.

한 운용사 임원은 "개인 범죄를 회사가 알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더욱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모럴 해저드를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극복과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단지안에 공원·체육관… 이웃 情 두터운 '예체능 아파트' 주목

건강 챙기고 친목 도모하고
가족愛·시세차익은 '보너스'

창원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
호수공원·스포츠파크 인접
청약 최고 경쟁률 422 대 1

#'딩동~'. 액정화면으로 보니 낯선 얼굴이다. "누구지? 뭘 팔러 오셨나?." 그래도 바로 문을 열어줬다. 다짜고짜 상담할 것이 있다는 낯선 사람은 다름 아닌 아래층 주민이었다.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 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올라왔다고 했다.

이웃 사촌 간에 정(情)을 나눈다는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파트 문화가 삭막해진 요즘이다. 최근 몇 년간 층간 소음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웃 간 왕래는 더욱 줄었다. 이에 올 한 해 주택 시장에서는 입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이나 경기장 인근 단지가 실수요층으로부터 주목받았다.

충남 천안 동남구 '청당 한양수자인 블루시티' 투시도.

◆공원·운동장 갖춘 아파트 인기

포스코건설이 지난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일원에 공급한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는 단지 주변에 용지호수공원, 용지문화공원, 반송공원 등이 있으며 실내수영장과 농구장, 운동장 등을 갖춘 창원스포츠파크가 인접해 있다. 청약 결과 108가구 모집에 4만5625명이 몰려 최고경쟁률 422.45대 1로 전 주택형이 1순위에 마감됐다.

삼성물산이 10월 말 입주자를 받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래미안 수지 이스트파크'는 단지 주변에 축구장, 테니스장, 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6만7000여㎡ 규모의 수지체육공원이 있다. 이에 2013년 8월 분양 당시보다 8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전용면적 84㎡가 4억3000만원대에서 5억1000만원(국민은행 10월 30일 기준)에 거래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최근 일부 건설사가 사계절 체육활동이 가능한 실내체육관을 단지 내에 조성하는 등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단지 내 체육시설은 입주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친목도모에도 효과적이어서 실수요자간 입소문을 통해 충분한 배후 수요가 확보된다"고 말했다.

◆공원 있는 아파트 어디?

이에 힘입어 신규 물량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 고양시 삼송지구에서는 주상복합용지 M블록에 '삼송 원흥역 푸르지오'가 분양되고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수변공원이 있고, 인근에 대규모 근린공원이 있어 산책과 가벼운 운동을 즐기기에 좋다. 또한 단지 인근에 있는 창릉천 수변공원은 원흥동부터 삼송동을 잇는 공원으로 족구나 배드민턴 등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과 놀이터, 바닥분수, 생태공원 등이 있어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외에도 북한산 국립공원, 노고산 도시 자연공원 등의 녹지공간이 풍부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306번지 일대에서는 '청당 한양수자인 블루시티'가 견본주택 개관과 함께 본격 분양 중이다.

단지 인근에 천안생활체육공원, 청수호수공원, 천안삼거리공원 등 산책과 운동이 가능한 공원이 있다. 청수호수공원은 분수대가 있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고 산책로도 정비돼 있으며 풋살경기장까지 있다. 천안생활체육공원은 축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야외무대 등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여기에 X-게임장까지 갖추고 있어 남녀노소가 함께 운동을 즐길 수 있다. 호수를 보며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천안삼거리공원은 각종 문화행사가 자주 열리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이모씨(38)는 "예체능 단지는 여름에 자녀들이 동네 친구들과 바닥분수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고 밤에는 이웃과 산책을 즐길 수 있어 좋다"며 "초등학교도 단지 인근에 있어 안전해 좋고 중심상업지구나 근린공원도 가까워 제격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내년 주택시장, 거래·공급·가격 둔화 전망"

주산연, 2016 전망 보고서
매매 3.5% 전세 4.5% 상승
"LTV·DTI 규제완화 종료시점
내년 3분기, 최대 변곡점 될 것"

〈2016년 주택매매가격·전세가격 전망〉 (단위: %)

구분		2014년	2015년 1~10월 (전년말 대비)	2015년 연간* (전년말 대비)	2016년* (전년말 대비)
매매	전국	1.7	3.1	4.0	3.5
	수도권	1.5	3.8	4.5	4.0
	지방	1.9	2.4	3.0	1.5
전세	전국	3.4	4.2	5.0	4.5
	수도권	4.8	6.1	7.0	5.5
	지방	2.1	2.4	3.0	2.5

주 :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지수를 활용했으며, *는 연구원의 추정치임. /주택산업연구원

내년 주택시장은 거래·공급·가격 등 모든 면에서 올해보다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일 '2016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주택시장의 매매가격은 3.5%, 전셋값은 4.5%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가 4%, 전세가가 5%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은 줄었다.

주산연은 "주택금융관련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종료 시점인 2016년 3·4분기가 최대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산연은 올해 4.5% 상승한 수도권의 집값은 내년에는 4%, 올해 7% 오른 수도권 전셋값은 내년에는 5.5% 오를 것으로 예상해 역시 올해보다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의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올해 3%에서 내년 1.5%, 전셋값은 올해 3%에서 내년 2.5%로 모두 올해보다 상승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산연이 자체 조사한 주택공급전망 BSI(Business Survey Index)도 118.5로 올해 130.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주택거래전망 BSI는 수도권 100, 지방 66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거래 감소가 예상된다. BSI가 100보다 크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는 의미다.

이는 거래·공급이 급증한 올해에 대한 기저효과로 주택시장 침체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표상으로 보면 주택산업은 여전히 경제 전반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라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주산연은 내년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변수로는 가계부채, 대출규제, 금리 등을 포함하는 '주택금융정책'을 꼽았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회복된 지 1년 남짓한 상황에서 주택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올해 급증한 공급물량 소진이 어렵고 내수 중심의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주택시장이 안정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산연은 올해 일시적으로 급증한 주택 공급 물량은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이 유지돼야 해소될 수 있다며 내년에는 오는 2017년 본격화되는 입주 시점에 국민이 분양받은 신규주택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상길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업계, 생존 경쟁력 키워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금융·외교 포괄한
산업 생태계 구축 시급"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에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주문했다.

강 장관은 2일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호텔에서 건설업계와 조찬간담회를 열고 "건설업계의 현재 위기는 경기 사이클상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와 산업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단순 도급형 시공사업에서 벗어나 융·복합형 프로젝트 개발로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설업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장관은 현재 건설산업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내외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술·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사업기획과 프로젝트 관리, 시공, 운영 뿐만 아니라 건설금융, 건설외교까지 포괄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산업단지나 도로, 철도 등 산업인프라 시장 외에 생활 인프라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와 함께 국내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입찰제도·보증제도 변별력 강화 ▲칸막이식 업역체계 유연화 ▲불공정관행 개선 ▲파이낸싱 통한 투자개발형 사업 전환 ▲고부가가치 사업역량 확대 등을 꼽았다.

그는 이외에도 부실기업은 퇴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도 한국형 상생모델 수출을 위한 적극적인 건설 외교는 물론 '코리아 해외 인프라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현재 건설업계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해외건설 수주감소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 성장전략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상길 기자

지식산업센터 '부천 삼보테크노타워' 입주자 모집

7호선 춘의역 5분 거리
코엑스몰의 1.4배 규모

지하철 7호선 부천 춘의역 부근에 코엑스몰의 1.4배 규모인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에스비개발프로젝트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춘의동) 385번지 128 일원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인 '부천 삼보테크노타워'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센터는 지하 4층~지상 27층 전체면적

18만1157㎡ 규모로 커머셜 존, 인더스트리 존, 하이테크 인더스트리 존, 오피스 존으로 구분돼 있다. 각 산업의 업무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를 했다.

하이테크 인더스트리존의 경우 전자조립, 부품제조 등 제조업의 특성을 고려한 하역 데크와 초대형 화물승강기를 설치해 물류 이동이 손쉽다.

센터는 지하철 7호선 부천 춘의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국철 1호선의 부천역과 소사역도 가깝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와 경인고속도로 부천 IC까지 차량으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법정 규정치보다 더 많은 주차공간이 조성되며 초대형 화물승강기를 설치하는 등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입주는 2018년 4월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새로 나왔어요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맞이
시즌 한정 음료부터 여러 MD까지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2일 '크리스마스 파네토네 라떼' 음료를 비롯해 '블랙쿠키 크림치즈 케이크'을 포함한 4종류의 크리스마스 홀케이크, '폴라베어와 스노우맨 시리즈' 등 24종류의 머그, 텀블러, 머들러, 코스터 등을 새롭게 출시한다.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 음료인 '크리스마스 파네토네 라떼'는 갓 구운 빵의 향긋한 버터 풍미가 느껴지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에 오렌지, 크랜베리, 사과로 구성된 화사한 건조 과일 토핑을 더한 제품이다. /유현희 기자

크리스피 크림 도넛 '핫프룻티 3종'
사르르 추위 녹일 땐 핫프룻티로

크리스피크림도넛이 '핫프룻티 3종'을 선보인다. 사과와 계피 향이 어우러진 '애플 시나몬', 라즈베리와 블루베리를 우려낸 '베리&베리'(사진), 라임과 감귤의 상큼한 맛을 담은 '라임 탠저린' 등이다. 가격은 모두 3700원. /유현희 기자

풀무원 '냉동비빔밥' 2종
전자레인지에 3분이면 OK

풀무원은 2일 업계 최초로 냉동 비빔밥 2종(사진)을 선보였다. 냉동밥 사업 슬로건도 이날 발표했다. 이번에 출시한 냉동 비빔밥은 '소고기버섯 비빔밥'과 '산채나물 비빔밥' 등 모두 2종이다. 2인분 용량으로 가격은 모두 5900원이다.

소고기버섯 비빔밥은 소고기에 표고버섯, 애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부추 등 5가지 재료로 구성됐다. 간장양념장과 참기름을 넣고 비비면 비빔밥이 완성된다.

산채나물 비빔밥은 도라지, 참나물, 취나물, 무청시래기, 제주 유채나물 등 다양한 나물들이 들어 있다. 전자레인지와 프라이팬 등에 3~4분간 데우면 바로 먹을 수 있다. /유선준 기자

이화의료원
'2015 뇌기능매핑 학술상' 이향운 신경과 교수 수상

이향운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가 '2015 뇌기능매핑 학술상'을 수상했다.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삼성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대한뇌기능매핑학회 201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이향운 교수는 'Altered functional connectivity in seizure onset zones revealed by fMRI intrinsic connectivity' 제목으로 신경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미국신경학회 공식 학술지인 '신경학'(IF 8.286)에 게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 뇌기능매핑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향운 교수는 이번 논문을 통해 뇌전증 수술환자의 두개강내 전극에서 직접 기록된 대뇌피질뇌파와 휴지기 상태의 기능적 자기공명영상과의 뇌 연결성 변화를 커넥토믹스 관점에서 분석, 뇌전증에서 변화된 뇌 회로도를 직접 삼차원 뇌지도 상에 규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10년만의 귀환' 스타워즈 맞이하는 유통계

〈스타워즈〉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개봉 기념 대규모 컬래버레이션 선보여
유니클로·신세계 등 각양각색 전연령층 고객 사로잡기 나서

유니클로 '스타워즈' 컬래버레이션 라인(위)과 해즈브로코리아의 'BB-8 드로이드 로봇'(오른쪽). 리모트컨트롤이 가능하다.

유통업계에 스타워즈 마케팅이 한창이다. 오는 17일 10년만에 개봉하는 스타워즈 시리즈는 올해 마지막 박스오피스를 달굴 기대작이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패션브랜드, 완구기업, 아웃도어 브랜드 등이 앞다퉈 스타워즈 관련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글로벌 SPA 브랜드 유니클로는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Star Wars: The Force Awakens)'의 개봉을 기념해 대규모 컬래버레이션 라인을 선보였다. 대표적인 기능성 이너웨어인 '히트텍(HEATTECH)'을 비롯해 다양한 남성 및 키즈용 상품에 캐릭터를 적용했다. 의류뿐만 아니라 룸슈즈, 우산, 블랭킷, 삭스 및 토트백까지 소품도 스타워즈를 캐릭터에 담았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유니클로는 추억의 명작 '스타워즈'의 개봉을 기념해 스타일리시하고 다양한 제품들로 기존 팬인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어린이, 여성들까지 다양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완구기업 해즈브로코리아는 이번 시리즈의 신규 캐릭터 'BB-8 드로이드 로봇'을 현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품은 R/C 완구로 리모트콘트롤로 몸체와 머리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 이밖에도 광선검 시리즈, 다양한 영화 캐릭터 피규어 및 마스크 등을 포함한 총 12종의 스타워즈 신제품도 내놨다. 광선검은 불빛이 나오고 두 개의 검을 부딪히면 특유의 배틀 사운드가 울려 영화 속 장면을 연상케 한다.

신세계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모든 점포를 직접 만든 스타워즈 상품과 피규어 전시, 스타워즈 레고 전시 등 스타워즈 테마파크로 조성한다. 스타디움 재킷, 반팔 티셔츠, 스웨터, 셔츠 등 의류상품과 백팩, 카드지갑, 쿠션을 비롯한 잡화상품 등 스타워즈 관련 자체 제작 상품 28개도 선보였다. 다음달 6일까지 본점에서는 관련 상품과 피규어 등을 선보이는 '스타워즈 피규어 전시'를 개최한다.

스타워즈 콜라보레이션 열풍은 아웃도어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는 다스베이더와 스톰트루퍼를 활용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티셔츠 2종을 출시한다.

아웃도어 브랜드 엠리밋 역시 27일 스타워즈 속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맨투맨, 반팔 라운드 티셔츠를 비롯, 스냅백과 슬링백 등 컬래버레이션 제품 4종을 선보였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현대백화점 겨울 머플러 할인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6일까지 '겨울머플러 할인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몰리올리, 질스튜어트, 닥스 등 12개 브랜드 참여하며 최대 60%까지 할인판매한다.2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모델들이 밍크머플러를 선보이고 있다. /현대백화점

햇반 컵반, 제주항공서 기내식으로 만난다
CJ제일제당 "글로벌 진출 교두보"

CJ제일제당은 '햇반 컵반'을 제주항공의 기내식으로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햇반 컵반의 기내식 시장 진출은 지난 6월 이스타항공 기내식 판매에 이어 두 번째다. 향후 다른 항공사까지도 기내식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항공 기내식 에어 카페(Air Cafe) 메뉴로는 햇반 컵반 '고추장나물 비빔밥'이 선정됐다.

이번 제주항공 기내식 판매는 햇반 컵반에게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햇반 컵반은 중국과 일본, 필리핀과 베트남 등 한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을 비롯한 총 15개의 제주항공 노선에서 판매된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햇반 컵반이 수출되고 있는 나라이며 CJ제일제당은 기내에서 햇반 컵반을 접한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현지에서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선준 기자

'오!감자' 中서 연매출 2000억 돌파
오리온, 중국인 3명중 1명꼴 구매

오리온은 '오!감자'(현지명 '야투도우')가 중국에서 연 매출 2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해외 단일 국가, 단일 상품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돌파하는 것은 우리나라 제과 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2006년 중국 시장에 첫 선을 보인 오!감자는 지난해 매출 1880억원을 기록하며 오리온 중국 제품 중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매출 212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까지의 판매량을 낱개로 환산하면 5억5000봉지에 달한다. 14억 중국인 세 명 중 한 명이 먹은 셈이다. 중국 대표 감자스낵으로 자리잡은 오!감자는 특유의 바삭한 식감과 독특한 모양으로 현지 소비자들에게 고급 스낵으로 인식되며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오리온은 현지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국내에 없는 토마토 맛, 스테이크 맛,치킨 맛을 내놓는 등 현지화 전략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 2분기에 출시한 허니밀크 맛은 달콤 계열 스낵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시장 트렌드를 이끌고 있기도 하다.

2013년 '중국 매출 1조' 시대를 연 오리온은 글로벌 제과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과 중국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매해 성장을 지속하며 현지 제과업계 2위 입지를 다지고 있다. 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위안화 기준 12.6%(원화기준 24.4%)의 고성장세를 회복하며 중국 내 제과사들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

특별한 "카누 크리스마스 블렌드 즐기세요"
동서식품, 아프리카산 원두로 화려한 풍미·부드러운 맛 더해

동서식품이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맥심 카누(KANU)의 한정판 스페셜 에디션 '카누 크리스마스 블렌드'를 알리는 행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동서식품이 매년 말 선보이는 스페셜 에디션 제품은 특별한 향미와 풍성한 사은품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올해는 케냐와 에티오피아 등 엄선된 아프리카산 원두를 블렌딩해 이국적이고 화려한 풍미를 갖추면서도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을 더했다.

제품 패키지도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키는 눈꽃과 동물 등이 그려진 디자인이 적용됐다. 특히, 코끼리와 기린 등 아프리카를 상징하는 동물들을 그려 넣어 아프리카산 원두를 사용한 제품의 특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품 패키지에는 크리스마스 느낌이 가득한 텀블러 및 니트 재질의 텀블러 커버가 사은품으로 동봉된다.

동서식품은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카누(KANU)'의 한정판 스페셜 에디션 '카누 크리스마스 블렌드'를 알리는 행사를 실시했다. /동서식품

이외에도 동서식품은 온·오프라인에서 크리스마스 블렌드 발매 기념 이벤트를 벌인다. 카누 페이스북(www.facebook.com/maxim.kanu)에서 진행 중인 온라인 이벤트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자신만의 사연을 응모하면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이벤트는 전국 주요 할인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카누 크리스마스 블렌드를 맛볼 수 있는 시음 행사와 제품 구매 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연다. /유현희 기자

"상품아닌 생활 팝니다" 롯데의 혁신

| 르포 | 문 여는 롯데마트 창원 양덕점 가보니…

6개층 1만4810㎡ 면적에 '제3세대 마트' 세워
주력 상품으로 간판 대신 하고 곳곳에 힐링공간
페이지그린·모터맥스 등 맞춤형 전시장도 눈길

"다양한 꽃과 각종 원예 용품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천장까지 이어진 책장에는 세계문학 전집이 가득했다. 카페에는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2일 찾은 롯데마트 양덕점 1층 한켠에 자리잡은 '페이지그린' 모습이다.

롯데마트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메트로시티 2차 아파트 상가에 양덕점을 개점했다. 본격적인 영업은 3일부터다. 양덕점은 이른바 '제3세대' 마트를 표방한다. 최저가 경쟁에 주력하는 제1세대 마트(2000년대 초중반), 차별화된 상품을 파는 제2세대 마트(2000년 후반)에 이어 제3세대 마트는 소비자에게 생활을 직접 제안하는 데 방점을 둔다. 공급자 중심의 단순 진열 상품 판매가 아닌 소비자가 체험을 통해 편하고 여유 있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영업면적 1만4810㎡, 지하1층~지상5층까지 6개층으로 구성된 양덕점은 외관부터 규모 이상의 웅장함을 자랑했다. 옆으로 넓게 지어진 마트 건물은 갑갑한 도심에서 여유로운 느낌을 풍겼다.

롯데마트 지하1층은 식품매장이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볼륨감 있는 과일 진열대를 만날 수 있다. 해빗(Hav'eat)이라는 롯데마트 친환경 식품 브랜드 매장으로 신선,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생활 뷰티 상품군까지 구입할 수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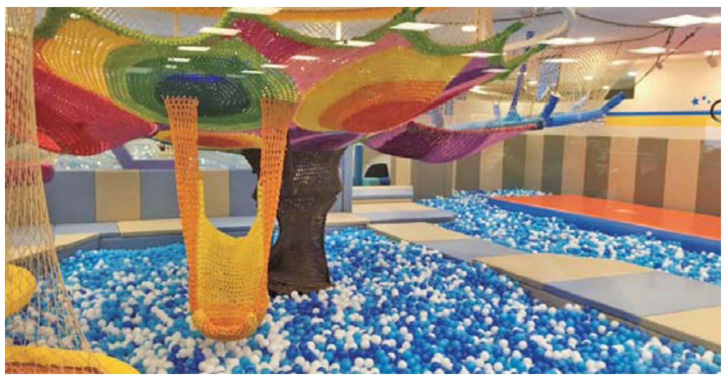
과일진열은 색감이 풍부하고 입체감이 있게 진열해 원산지 느낌을 그대로 담았다. 좀 더 안쪽으로 진입하면 가공식품 진열대를 볼 수 있다. 끝이 없어 보일 정도로 긴 진열대는 원하는 상품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서현선 롯데마트 MD혁신부문장은 "이곳 양덕점의 진열대는 기존 매장 진열대 10m의 두배 길이인 20m에 달한다. 고객이 이곳 저곳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 진열대에서 모든 상품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진열대 높이도 3m에 달한다. 기존 매장에서는 진열대에 상품 중분류 표를 달아 구분하게 했지만 양덕점은 가장 높은 곳에 주력 상품을 진열함으로 고객이 텍스트 없이 상품을 보고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손이 닿지 않는 높이라 걱정했지만 아래쪽에 중복배치 돼있어 구매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서 부문장은 "3세대 마트의 첫 번째 혁신이 상품품질 혁신이었다. 진열대 가장 위의 상품들은 품질을 인정받은 상품들로써 기존 상품을 분류했던 문구를 대신해 간판역할을 하고 있다. 고객들은 상품을 보고 이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위 1층 페이지그린 매장. 이곳에는 원예상품과 서적이 진열됐다. 고객을 위한 의자와 카페도 있어 힐링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운데** 지하1층의 과일 진열대. 색감과 입체감을 살려 원산지 느낌이 들도록 진열했다. **아래** 615㎡ 규모의 어린이 놀이시설로 150~200명까지 수용가능하다. 다양한 놀이시설과 10여 명의 직원들이 있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쇼핑을 즐길 수 있다. /김성현 기자·롯데마트

페이지그린은 원예상품, 서적 등을 판매하는 매장이다. 카페도 있다. 원예상품 진열대에서는 은은한 꽃 향기가 퍼졌으며 곳곳에 비치된 의자 주위로는 감미로운 음악이 흘렀다. 서 부문장은 "311㎡넓이로 구성된 페이지그린은 매출을 위한 매장이 아닌 마트 고객이 앉아 쉬며 힐링하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페이지그린을 지나면 모터맥스(MOTOR MAX), 룸바이홈(ROOM × HOME), 잇스트리트(It.Street) 등의 매장을 차례로 볼 수 있다. 같은 카테고리의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보기 좋게 모아 고객이 자신의 개성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진열했다.

2층을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부터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이곳은 식품매장과 하이마트, 어린이 전문매장 '토이저러스'가 있는 곳이다. 또 슈즈 전문 토탈샵 '에스 마켓'도 옆에 있다.

전체적으로 가족들이 쇼핑을 즐기기에 최적화된 곳이다. 식사를 위한 식당부터 전자기기,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상품들을 한 동선에서 만날 수 있다. 615㎡ 크기의 어린이 놀이공간도 있어 쇼핑 시 아이걱정을 하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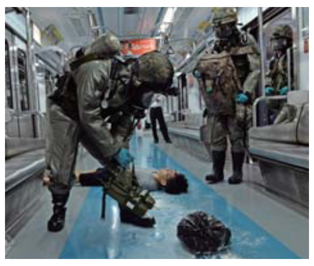
신주백 롯데마트 MD혁신 팀장은 "롯데마트 양덕점은 생활스타일을 제안하는 카테고리 킬러 매장"이라며 "양덕점의 목표는 월 매출 80억원과 하루평균 방문객 8000여 명"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측은 양덕점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등의 권역 매장을 3세대 매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창원=김성현 기자 minus@

"지하철에 테러는 없다"

서울메트로, 테러대비 총력

특별대책 수립·시행



지난 8월 19일 서울 동작구 사당역에서 열린 '민방공 대피훈련' 중 군이 적의 독가스 테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테러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최근 테러위협 증가에 따라 테러경보가 평시 수준인 '관심' 단계로 환원될 때까지 지하철 시설에 테러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지난달 17일 테러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역사와 열차 내 순회 점검을 강화해왔다. 그러한 가운데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매뉴얼과 별도로 특별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거동수상자나 의심 물체 발견 시 사전에 조치될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 역마다 설치된 CCTV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 직원이 순회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하철 보안관 2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서울역, 고속터미널역, 신도림역 등 14개 주요역에는 역당 4~6명의 경찰을 배치해 집중 감시활동을 벌인다.

경찰은 승강장과 환승 통로 등 승객이 붐비는 곳을 2인 1조로 순회 근무한다. 아울러 시민 안전감시단 50명을 별도로 구성해 취약개소 점검 등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

실제 테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준비 태세도 갖춘다. 테러대응 모의훈련의 경우 정기적인 훈련 외에 12월 중 4회를 추가해 집중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잠실역, 명동역 등 주요 역에서 한다. 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테러상황을 3개 유형, 26개 상황으로 세분화해 실무매뉴얼을 정비·보완한다.

또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12월 중 '안전 통합상황실'을 신설한다. 상황실에서는 열차 운행정보와 사고현장의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유관 기관과 긴밀한 정보공유 등 통합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누구나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지하철이 되도록 테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심 물체 발견 시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지만 장난 신고는 삼갈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한국장학재단·효성ITX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 업무협약

한국장학재단과 효성ITX가 지난 1일 효성ITX에서 '학자금대출자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효성ITX는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졸 미취업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채용확정자에게 손해금감면 분할상환약정과 신용유의정보 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취업지원자는 효성ITX에 입사지원시 개인정보제공동의 절차와 학자금대출보유여부 확인을 거치게 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채용예정자의 손해금감면분할상환 약정 신청을 받아 약정체결 후 부실채무자의 신용유의정보를 해제할 계획이다.

취업연계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상담센터(1599-225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2011년부터 취업연계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아울러 참여기업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고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2016 JBM 장학생' 모집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 귀금속산업의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JBM(Jewelry Brand Management) 과정 2016년 장학생을 모집한다.

2010년부터 진행해온 JBM 과정은 국내 귀금속산업의 진흥을 위해 만들어졌다. 토종 브랜드 개발이 목표다. 2016년도 7기부터는 주얼리 브랜드 창업 또는 취업에 뜻을 갖고 있는 전문대학 졸업(예정) 이상이면 전공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내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주얼리 브랜딩·마케팅 집중교육을 받게 된다. 브랜드 기획과 디자인·제품제작은 물론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론칭을 실시하는 브랜딩 전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에서는 주얼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매년 3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생은 JBM 과정을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고 해외박람회 연수와 브랜드 론칭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료 후에는 창업 및 취업지원 등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한편 지난해 JBM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브랜드 기획안 발표, 국내 판매전·론칭전을 성공리에 개최했다(사진). 수료 후 해외인턴(뉴욕), 중견기업이상 취업, 창업 등 다방면으로 진출해 2년 연속 100% 진로가 확정됐다.

월곡재단의 관계자는 "월곡재단은 현장교육에만 머물지 않고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교육으로 론칭함으로써 졸업 후 취업과 창업에 자신감을 실어주고 있다"며 "우리나라 주얼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브랜드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 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http://w-jewe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경민대 HOUR24팀 '한이음 엑스포 2015' 은상

사물인터넷 이용한 '내손에 IoT홈' 시연

경민대학교 HOUR24팀이 지난달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이음 엑스포 2015'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경민대학교 장세진, 양욱모, 우현규로 구성된 HOUR24팀은 이날 스마트폰을 이용한 홈 네트워크 시스템 '내손에 IoT홈'을 시연했다.

'내손에 IoT홈'은 스마트폰의 인터넷망을 통해 가정 내 홈 디바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스마트폰의 이용이 대중화되고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한 HomeIoT(사물인터넷)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람객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한편 한이음 엑스포는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업 멘토의 도움을 받아 우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전시하는 대학생 ICT(정보통신기술) 전시회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주관한다.

/신원선 기자

우동맛

Art By 현용민

제작 | 그림자story www.grimzastory.com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역학공부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리더십·통찰력 있어 도움되실 듯

신보살 여자 66년 11월 11일 양력 8시경

Q 선생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메트로신문 독자입니다. 특히 선생님이 기고하고 계신 '사주 속으로'를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매일 보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허전 할 정도입니다.

저는 3년 전에 남편이 딴 여자를 얻는 바람에 헤어지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종교에 심취한 적은 없으나 꿈을 꾸면 잘 맞습니다. 선생님의 상담을 스크랩 하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학 공부를 하여 성공 할 수 있는지요. 어느 절에 스님이 제가 활인업(活人業·사람을 살리는 직업)에 종사할 팔자라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지요.

A 명리(命理)의 이론은 인생이 순조롭게 발전하며 육체적인 건강과 물질적인 번영을 구할 수 있다는 사상에서 일부 출발하기도 합니다. 기원은 지구의 탄생 전으로 올라가겠으나 아마도 고대인들이 자연의 위력에 대한 수용과 그것과의 조화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 해석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암석에 맺힌 이슬을 살펴 습한 땅을 가려내고 작황의 예측을 위해 주변 식물들의 신선도를 고려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이 있는 곳은 높은 지역이고, 물이 있는 곳은 드넓은 평야가 있어 시야가 넓고 전망이 좋습니다. 역(易)의 학문도 이렇듯 자연을 공부하는 것이므로 누구든지 공부를 한다면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교보다는 현실적이죠. 종교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들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주가 자좌관고(座自官庫:앉은 자리에 남편을 깔고 앉은 형상)로 사람들을 리드 할 수 있습니다. 또 철쇄개금(鐵鎖開金:철자물쇠를 열음), 술해(戌亥) 천문성(天門星), 화개살(華蓋殺)을 갖고 있으니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귀문(鬼門:귀신이 들락거리듯 신비성이 있음)이 동하고 있으니 접신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설득 할 수 있는 식신(食神:내가 생해주는 오행)이 발달을 하고 일간에 현침(懸針)이 있으니 예리하게 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서 손색이 없습니다.

최근 명리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학에서도 '미래학'으로 가르치고 있죠. 옛날에는 선비들이 명리를 기본적으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 산소의 명당 찾기는 왜 그리 혈안이 되는지 한심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신점[神占] 운세

12월 3일 (음 10월 22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동남쪽이 길한 방향입니다. **60년생** 노력하고 기다려 보세요. **72년생** 조심 또 조심하세요. **84년생**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49년생 이로운 것이라면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61년생** 뭔가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세요. **73년생** 시기가 좋습니다. **85년생** 불리하게 전개되니 상대방과 타협하세요.

50년생 발전 일로에 있으니 걱정마세요. **62년생**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일이 잘 풀려 나갑니다. **74년생** 과음과식을 조심하세요. **86년생** 여행은 휴식입니다.

51년생 큰 복이 눈 앞에 있습니다. **63년생**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바라는 대로 이뤄집니다. **75년생** 장애물이 없으니 탄탄대로라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87년생** 윗사람을 공경하세요.

52년생 매사 불안하나 끝내는 이루어 집니다. **64년생** 어렵게 성사될 일이 아니어 쉽게 이뤄지고 앞길도 밝겠습니다. **76년생**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88년생** 생각지 못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53년생 지성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지겠습니다. **65년생**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세요. **77년생** 일들이 조금씩 원만하게 풀려 나갑니다. **89년생** 심신수양에 힘쓰도록 하세요.

54년생 조바심이 날 수 있습니다. **66년생** 사소한 계획도 성공합니다. **78년생** 결실이 뜻과 맞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90년생** 집에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55년생 즐거운 날을 보내게 됩니다. **67년생**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 하세요. **79년생** 방식을 바꾸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91년생** 칭찬이나 혹은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6년생 방식을 바꾸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68년생** 노력이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80년생** 고집을 버리고 행동하는 것이 길합니다. **92년생** 부채로 인해 어려운 시기입니다.

57년생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입니다. **69년생** 마음에 안정이 없고 중심이 없습니다. **81년생** 아직 때가 아니니 좀더 기다려야 합니다. **93년생** 마음에 안정이 없고 중심이 없습니다.

58년생 집안에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70년생**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82년생** 귀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운아입니다. **94년생**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 쓰지 마세요.

59년생 패배를 인정하고 반성하세요. **71년생** 이성과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83년생** 주변인들을 너무 믿는 것은 금물입니다. **95년생** 괴롭지만 고통을 내색하지 마세요.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9	3
6					9		8	
4			7	8				
				5	8	2		
	5		1	2	6		4	
		6	9	4				
				9	3			1
	3		8					6
8	7						3	

		1		2		3		4
			5		7			6
			1	3		5		9
								5
2	8						1	3
3								
7		6		9	2			
8			4		5			
1		3		8		4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7	1	8	5	6	2	4	9	3
6	2	5	4	3	9	1	8	7
4	9	3	7	8	1	6	5	2
1	4	7	3	5	8	2	6	9
3	5	9	1	2	6	7	4	8
2	8	6	9	4	7	3	1	5
5	6	4	2	9	3	8	7	1
9	3	1	8	7	4	5	2	6
8	7	2	6	1	5	9	3	4

5	7	1	6	2	9	3	8	4
9	3	8	5	4	7	1	2	6
6	2	4	1	3	8	5	7	9
4	1	9	8	7	3	2	6	5
2	8	5	9	6	4	7	1	3
3	6	7	2	5	1	9	4	8
7	4	6	3	9	2	8	5	1
8	9	2	4	1	5	6	3	7
1	5	3	7	8	6	4	9	2

메조 소프라노 이아경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
CHRISTMAS IN LOVE
크리스마스 인 러브
with Friends
지휘 | 서희태
연출 | 이의주
소프라노 | 박미자
소프라노 | 오미선
소프라노 | 강혜정
소프라노 | 김문희
소프라노 | 박수진
테너 | 이영화
테너 | 나승서
테너 | 이재욱
바리톤 | 강형규
바리톤 | 한명원
테너 | 김동녘
합창 | 메트 오페라 합창단
연주 |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2015. 12. 21 | 월 | 8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서울시민간오케스트라연합회
티 켓 VIP 12만원 | R 10만원 | S 7만원 | A 5만원 | B 3만원
예 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인터파크 1544-1555 문 의 02-6292-9370

한-몽 수교 25주년 기념

'몽골리안 갈라 콘서트' 열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6일 오후 5시 서울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열리는 한·몽 수교 25주년 기념 '몽골리안 갈라 콘서트'를 후원한다.

주한몽골대사관은 한-몽 수교 25주년을 맞이해 올 한 해 다양한 문화교류행사를 개최해왔으며, 이번 콘서트로 문화교류행사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이번 행사를 위해 몽골국립오페라발레극장의 단원 70여 명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몽골 클래식의 정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제14회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성악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한 아마르투브신 엥흐바트를 비롯해 몽골을 대표하는 성악가들과 오케스트라단의 연주자들이 모차르트, 베르디, 푸치니의 오페라 작품과 우리의 가락 '아리랑'을 공연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연이 한-몽 양국의 문화교류와 협력 관계를 더욱 두텁게 하고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장진 감독의 연극 '꽃의 비밀' 올겨울 추위 녹이는 코믹 선사

장진 감독의 신작 연극 '꽃의 비밀'(제작 문화창작집단 수다, 수현재컴퍼니)이 지난 1일 개막했다.

'꽃의 비밀'은 문화창작집단수다의 대표이자 연출가인 장진의 컴백작으로 2002년 연극 '웰컴 투 동막골' 이후 13년 만이다.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골 때리는 아줌마 네 명이 남편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각자의 남편으로 변장,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룬 코믹극이다. 우스꽝스러운 아줌마들의 분장과 능청스러운 1인 2역 연기는 관객의 웃음을 유도한다. 네 명의 아줌마들의 수다는 여성의 공감은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통쾌함까지 선사한다.

지난 1일 DCF 대명문화공장 2관 라이프웨이홀에서 개막했으며 내년 1월 31일까지 공연한다. 배우 김연재, 추귀정, 한예주, 조연진, 한수연, 김나연, 오소연, 심영은, 김대령, 이창용, 차재이, 권세린이 무대에 오른다. (문의:02-766-6506)

/신원선 기자

"롤모델 대신 나만의 색 만들래요"

JTBC 드라마 '송곳' **현 우**

2010년 MBC 드라마 '파스타'의 셰프 현우(30)가 청과매장의 과일 판매원으로 변신했다. 친구를 위해 노조 활동을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오랜 꿈이었던 본인의 가게까지 차렸다. 여전한 꽃미소를 자랑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소녀 마음 뿐만 아니라 아줌마 마음까지 사로잡았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JTBC 드라마 '송곳'(극본 이남규·연출 김석윤)에서 현우가 연기한 주강민 이야기다.

"기존에 참여했던 작품들과 내용 면에서 차별화되기 때문에 더욱 특별해요. 다른 모습을 연기했기에 '더 잘할수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기존 출연작들에서는 연애와 사랑 이야기가 주였지만, '송곳'은 치열한 삶을 다룬 작품이다 보니까 촬영하면서도 인생에 대해 배운 것들이 많아요. 저를 깨우치게 만든 작품이죠."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송곳'은 대형마트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다. 비정규직의 애환, 정규직 직원들의 노조 결성의 부담, 시위 과정의 어려움 등은 낱낱이 그려 큰 화제를 모았다.

"드라마 주제가 많이 무겁죠. 처음 대본을 받고 과연 제가 역할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너무 하고 싶었어요. 주강민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인물이고 올곧은 성품을 가졌는데 어느 배우가 욕심이 안나겠어요."

'긍정의 아이콘'으로 마트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는 주강민의 모습은 실제로 현우와 많이 닮았다. 현우는 "성격 뿐만 아니라 웹툰을 이미 접한 사람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완성도에 많이 신경썼다"고 말했다.

욕심나는 역할에 걱정도 잠시
시청률 부진에도 분위기는 최고
한번 했던 역할도 발전된 연기로

'송곳'은 드라마의 주제와 내용 면에서 웰메이드(well-made)라는 호평을 받았지만, 시청률은 다소 부진했다. 지상파인 MBC 드라마 '내딸 금사월'과 같은 시간대에 편성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시청률은 낮았지만, 시청자의 호응은 좋았어요. 굳이 본방송 시청률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게 모바일, 재방송으로도 많이 보시니까요. 그리고 현장 분위기만 놓고 보면 시청률 1위였어요. 푸르미 마트 누나들과 즐겁게 웃으면서 촬영했고, 지현우 선배님, 안내상 선배님께 연기를 많이 배울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하고 싶은 역할에 대해 "기회가 된다면 비슷한 작품에 다시 출연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왕 역할부터 거지 역할까지 하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요. 계속해서 이미지 변신, 색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도 물론 좋죠. 하지만 한 번 했던 역할을 다시 하면 더 발전된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슷한 나이 또래 연예인이 하나의 작품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를 때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필모그라피를 쌓고 있다. 의기소침해질 법도 한데 그는 문제삼지 않는다.

"예능, 드라마, 영화 등 종류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역할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제가 나오는 작품을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열심히 달리고 싶어요."그는 하고 싶은 역할에 대해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

현우는 존경하는 배우는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지만 롤모델은 없다고 한다. 자신만의 색을 창조하는 것이다.

"영화 '타이타닉'을 보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출연한 작품을 전부 찾아봤어요. 그 분 덕분에 배우라는 꿈을 꾸게 됐죠. 저 또한 작품을 통해서 시청자에게 기쁨을 주고 꿈을 심어주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물론, 저만의 색깔로요."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TV 하이라이트

'미국에서 왔어요' 특집

◆ KBS2 '해피투게더3'

오후 11시10분

독보적인 어메리칸 스타일로 한국 연예계를 사로잡은 스테파니 리, 존 박, 에릭 남, 윤상, 이현우가 출연해 글로벌 토크를 펼친다. 최근 극과 극의 통역 실력을 선보인 존 박과 에릭 남은 이날 역시 영어 발음을 두고 신경전을 펼친다.

KBS1	KBS2	MBC	SBS	JTBC	tvN	OCN	채널CGV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남도지오그래피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특집 무형유산 6마당 우리 전통의 멋과 흥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인간의 조건 스페셜	05:00 MBC 뉴스 05:10 건강 플러스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내일도 승리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0 기분 좋은 날 11:00 내 딸, 금사월 (재)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10 청담동 스캔들 11:50 SBS 12뉴스	06:00 유자식상팔자 (재) 07:00 쿵푸 공룡수호대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0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재) 11:55 비정상회담 (재)	06:00 집밥 백선생 오늘 뭐 먹쥬? (재) 06:2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 (재) 08:10 응답하라 1988 (재) 11:50 집밥 백선생 (재)	04:30 부당거래 06:30 내 마음의 풍금 08:30 처용 2 (3~5회 재방송)	04:50 마이웨이 07:20 플랜맨 09:30 전우치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0 세계가 품은 한국의 미 (재) 14:00 다문화 희망 프로젝트 네 꿈을 펼쳐라 (재) 15:00 2015 코리언 지오그래픽 (재) 16:00 오늘의 경제 16:10 2015 ABU 로보콘대회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2:15 인간극장 스페셜 14:00 KBS 뉴스타임 14:10 생활의 발견 (재)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40 동물의 세계 17:00 위기탈출 넘버원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엄마 (재) 13:3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14:00 2015 청소년 푸른 성장 대상 15:00 MBC 뉴스 15:10 헬로키즈 싸이걸스 (재) 15:55 프리파라 16:25 아름다운 당신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45 자기야-백년손님 (재) 14:00 TV 동물농장 (재) 15:00 3시, 뉴스브리핑 16:00 고향이 보인다 16:30 꾸러기 탐구생활 17:00 변신자동차 또봇 17:30 SBS 뉴스 퍼레이드	13:15 냉장고를 부탁해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2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 (재) 15:10 코미디 빅리그 (재) 16:40 응답하라 1988 (재)	13:00 써니 15:20 토르:천둥의 신 17:30 최종병기 활	12:10 초콜렛 도넛 14:10 사대명포 2 16:30 의뢰인
18:00 6시 내고향 18: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9:00 KBS 뉴스 7 19:30 한국인의 밥상 20:25 우리 집 꿀단지 21:00 KBS 뉴스 9 22:00 KBS 다큐 1 23:00 KBS 뉴스라인 23:40 행복의 조건, 신뢰 24: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8:00 글로벌24 18: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9:50 다 잘될 거야 20:30 2TV 저녁 생생정보 2 20:55 비타민 22: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23:10 해피 투게더 24:45 스포츠 하이라이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아름다운 당신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달콤살벌 패밀리 23:10 위대한 유산 24:30 MBC 뉴스 24 24:55 MBC 다큐프라임	18:05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2:00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16회) 23:15 자기야-백년손님 24:35 나이트라인	18:3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재) 19:55 JTBC 뉴스룸 21:30 최고의 사랑 22:50 썰전 24:2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재)	18:30 응답하라 1988 (재) 20:20 어쩌다 어른 21:4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2 23:0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24:50 응답하라 1988 (재)	19:50 월드 워 Z 22:00 타짜 24:30 너스3D	19:00 버킷 리스트-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20:50 주말 N 영화 22:00 댄싱퀸 24:30 브이 포 벤데타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어야 사업하는 시대?

전 우 진 지사장
리저스코리아

내년에도 경기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은 3.6%에서 3.0% 내외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일부 기관들은 2.5%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예측까지 내놓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저유가 기조로 인한 소비자 부양효과 위축 등이 내년도 세계 경제의 복병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이 내놓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3.3% 수준이다. 정부는 3.3%로 가장 장밋빛 전망치를 내놓았지만 LG경제연구원은 2.7%, 현대경제연구원은 2.8%,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의 전망치를 내놓았다. 모건스탠리는 2.2%의 경제성장률을 제시해 가장 낮았다.

이처럼 저성장시대가 지속되면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적응해야 생존할 수 있다. 실제로 이미 소비자들은 저성장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알게 모르게 변하고 있다. 김난도 교수 등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최근 펴낸 2016년 트렌드를 보면 소비자들은 더욱 더 '가성비'에 매달릴 것이라고 한다. 비록 무명 브랜드이지만 '착한 가격'이면 기꺼이 소비하겠다는 소비자들의 변화를 감지한 것이다. 가격대비성능의 줄임말인 가성비는 저성장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소비자들의 '진화'일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소유해야 한다는 인식도 바뀌고 있다. 소유에서 임대로 의식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소비자들은 모든 것을 소유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집, 자동차, 가전제품, 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자기만의 것을 갖고 싶어 했고, 그걸 이룬 사람들을 부러워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런 경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얼마 전까지 대다수 직장인들은 열심히 벌어서 돈을 모았다. 집을 사기 위해서다. 그러나 평생 직장에서 받은 봉급을 모아봐야 집을 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제는 아예 집을 소유하는 걸 포기하고 그저 이용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내집 마련'이라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시키는 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내집마련 기간이 10년 미만이었지만 이제는 평생 월급을 모아봐야 서울에서 집장만 하는 게 불가능해지자 현재의 행복에 충실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집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전제품, 의류, 아이들 장난감까지 빌려쓰고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사무실도 필요한 만큼 이용하는 현명한 기업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로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은 사무실 부동산 등을 소유하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고 한다. 이들은 부동산 임대료 등으로 운전자금이 묶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무실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금 유동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고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무실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이다.

내년 경기전망이 여전히 잿빛으로 우울하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살아남고 성공한다. 주위 변화를 누가 먼저 감지하고 변하느냐가 사업성패의 갈림길이다. 모든 것을 소유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사용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잡으면 생존과 성공의 확률은 높아진다.

社說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필요하다

정부가 공공의료 전담 의사를 양성하는 대학을 세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계획을 발표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결심은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의 법적인 근거는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이며 졸업 후 10년간 공공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준다. 대학은 2020년 설립되고 모집정원은 학년당 100명씩 모두 600명이다.

메르스사태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2명으로 OECD 가맹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인구 1000명당 간호사도 5.2명에 불과해 역시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실감나지 않지만 지방에서는 심각하다. 내과 외과 등 기본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전혀 없는 시군이 적지 않고, 강원도에는 산부인과가 부족해 많은 산모가 출산하다가 사망한다. 또 간호사가 아예 없는 '무간촌(無看村)'이 적지 않고, 이 때문에 지방중소병원의 응급실과 입원실 유지가 어렵다. 공중보건의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의료사각지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의료사각지대가 늘어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다만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가 우려된다. 이 문제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필요하면 장관 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라도 의료계에 의료인력 부족실태를 제대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SK텔의 CJ헬로 인수, 쟁점은

기자 수첩

정 문 경
〈산업부〉

CJ헬로비전 인수를 앞둔 SK텔레콤과 그 반대 진영의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위법성 논란부터 불공정 경쟁 시비, 미디어 시장의 특수성 보호 여부 등 쟁점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양측 모두 이번 인수·합병(M&A)이 방송·통신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을 잘 알고 있기에 사활을 건 공방이 여전하다.

SK텔레콤은 지난 1일 CJ헬로비전 지분 인수와 합병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에 접수했다.

주요 쟁점은 이동통신 시장 독과점 논란, 결합상품 논란 등 이다. 특히나 알뜰폰(MVNO)의 경우 SK텔레콤이 업계 2위 사업자인 SK텔링크를 계열사로 두고 있으면서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과 합병하는 형국이므로 논란이 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인수 전후로 점유율 변화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CJ헬로비전의 알뜰폰 가입자의 절대 비중이 KT 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수로도 전체 시장에서 점유율 변화는 1.5% 증가하는 수준으로 분석된다.

이동통신시장에서 지배력 변화에 민감한 이유는 결합상품 때문이다. 이동통신 상품을 중심으로 한 결합상품 시장이 막강해지면서 지배력이 유료방송으로 전이될 것이라는 게 경쟁사들의 주장이다. SK텔레콤은 정부가 제도 개선안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M&A 인가 여부를 따지는 잣대가 될 수 없다고 일축한다. 지난 8월 정부는 개선안을 마련했고 현재 후속 조치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를 추진하고 있다. 약관과 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결합혜택을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합병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실제 도움이 되겠냐는 지적도 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서도 시장 발전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쟁점들은 각기 논리성을 가진 모양세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SK텔레콤은 이를 그대로 좌시해선 안된다. 보여주기 식의 투자 활동이 이뤄진다면 SK텔레콤이 말하는 '선순환' 산업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투자에 소홀할 것이라는 우려와 초고속인터넷 등을 재판매하면서 수익을 얻으려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추측이 현실이 되어선 안된다.

/hm0108@metroseoul.co.kr

'北 지뢰도발' 부상, 김정원 하사 '두 다리로' 퇴원

의족 착용 후 재활치료 완료
기자들에 군 복귀 의사 전해
"걷는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

지난 8월 4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로 오른쪽 발목을 절단한 김정원(23) 하사가 퇴원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2일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모두 마치고 퇴원하는 김 하사의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다.

김 하사는 병원 2층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군에서 내 능력을 크게 쓰임 받고 싶다"며 군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취재진의 요청에 짧은 거리를 달려 보이기도 했으며 두 팔을 위로 들고 펄쩍 뛰어오르기도 했다.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김 하사는 "(지뢰도발 직후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중환자실이었고 한 발로만 걸어야 한다는 생각에 암담했다"며 고통스러웠던 당시를 회고했다.

이어 "지금은 잘 걷고 뛸 수도 있다"며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고 기쁘기 그지없다"고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자신과의 싸움, 그것 밖에 없었다"고 짧게 답했다.

김 하사는 부상 직후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10월 7일 중앙보훈병원으로 옮겨 의족을 착용하고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았다.

중앙보훈병원에서 퇴원한 김 하사는 다시 국군수도병원으로 가 1~2개월 동안 마무리 치료를 받은 다음 군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를 마친 김 하사는 병원 측이 선물한 꽃다발을 들고 의료진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성큼성큼 걸어 병원 밖으로 나갔다.

/연합뉴스

상가 임대료 책정 시 고려해야할 것

생활법률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의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 10년간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했던 임대료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B씨가 크게 반발한 것. B씨는 과도한 임대료 상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년 전 계약 이후 임대료 인상 없이 계약을 유지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A씨는 답답할 뿐이다. 지난 계약에서 임대료를 동결했던 A씨는 이번 재계약에서 현재 시세에 준하도록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을까.

경기 불황과 저금리가 장기화되며 임대료를 올리려는 임대인과 그에 반발하는 임차인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민법보다 우선해 적용된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법 10조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 법에 따라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임대료나 권리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동법 11조에 따라 100분의 9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10조 8항에 따라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5년까지만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최초 계약으로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 사건과 관련된 판례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는 한에서만 차임 등에 대한 증감청구권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임대료 인상 수준에 대해서도 시세에 맞도록 조정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임대차 계약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를 기존의 100분의 9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연미란 기자 actor@

인사

◇코오롱그룹 〈코오롱플라스틱〉 ▲ 대표이사 부사장 장희구 〈㈜코오롱〉 ▲ 전무 윤광복 ▲ 상무보 김기수 권순욱 〈코오롱인더스트리〉 ▲ 전무 주성락 김상태 ▲ 상무 유병진 한경애 ▲ 상무보 이규호 임재춘 정대식 박규대 서혜욱 〈코오롱글로벌〉 ▲ 전무 안효상 ▲ 상무 임성균▲ 상무보 윤종우 신승철 이인우 〈코오롱글로텍〉 ▲ 전무 노춘식 ▲ 상무 최지철 ▲ 상무보 왕진철 〈코오롱패션머티리얼〉 ▲ 상무보 하명직 〈코오롱워터앤에너지〉 ▲ 전무 임추섭 〈코오롱플라스틱〉 ▲ 전무 김종문 ▲ 상무 서진철 박상봉 ▲ 상무보 서창환 〈코오롱베니트〉 ▲ 상무보 김해도 〈코오롱제약〉 ▲ 상무보 감성훈

◇산림청 ▲ 산림보호국장 최병암

◇천안연암대학 ▲총장 육근열

◇조선대학교 ▲언어교육원장 정규영 ▲민주화운동연구원장 문석우

부고

▲ 김석한씨 별세, 김경호(강남종합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김태갑(교보생명 바른노조위원장) 부친상 = 2일 오전 3시, 인창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4일 오전 9시. 051-464-5831

▲ 윤인현씨 별세, 황윤구(경남은행 서울분실장)·윤철(정일스톨트헤븐 부사장)·윤탁(창원삼성병원)씨 모친상= 2일, 경남 창원삼성병원 장례식장 특5호, 발인 4일, 055-290-628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송 필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박병호, 아쉬운 몸값… 홈런으로 갚는다

5년간 1800만 달러에 계약 "언론·팬 기대보다 낮은 수준 돈보다 빅리그 경험에 자부심"

미네소타는 어떤 팀? 올 리그 2위에도 PS 진출 못해 朴 영입… 25년 만에 WS 도전

박병호가 미네소타 트윈스와 5년 최대 1800만 달러의 조건에 계약했다. 사진은 이날 미네소타 트윈스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올라온 박병호. /연합뉴스

박병호(29)가 1800만 달러의 사나이가 됐다.

미국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2일(한국시간) 미네소타가 한국프로야구 최우수선수(MVP) 출신 박병호와 4년 1200만 달러, 5년째 구단 옵션을 포함해 1800만 달러(약 208억4400만원)에 계약했다고 보도했다. 역대 아시아 야수 가운데 스즈키 이치로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MLB닷컴에 따르면 박병호는 4년 1200만 달러를 보장받는다. 2016년과 2017년에는 275만 달러를, 2018년과 2019년에는 300만 달러를 수령한다. 미네소타가 5년째 구단 옵션을 행사하면 2020년 박병호에게 650만 달러를 줘야 한다. 5년째 박병호와 계약하지 않으면 바이아웃(계약포기위약금) 금액 5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미네소타는 지난달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에 나서 최고 응찰액 1285만 달러를 적어내 박병호와의 독점 교섭권을 따냈다.

◆ **평가절하 연봉에 현지 언론도 갸우뚱**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까지 현지 언론은 박병호의 몸값을 연 500만 달러 이상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박병호는 5년 기준으로 연평균 360만 달러, 4년 기준 300만 달러의 예상치를 밑돈 금액을 받아들였다.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계약한 강정호보다 100만 달러 높은 수준에 그친 것.

현재 언론들은 포스팅 응찰액에서 강정호보다 2배 이상 높은 응찰액을 기록한 박병호가 기대이하의 대접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박병호가 강정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포스팅 응찰액을 기록하고도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는 것에 현지언론은 의문을 제기했다.

미니애폴리스 스타트리뷴은 강정호의 계약 조건(5년 최대 1625만 달러)보다 크게 높지 않다며 의아해하기도 했다.

박병호는 지난달 29일 미네소타로 출국하며 "언론과 팬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낮은 금액이라고 들었다"며 "그래도 세계 최고 선수가 뛰는 메이저리그에 입성한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기분 좋게 사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병호는 연봉보다 큰 리그를 경험하는 데 방점을 뒀음을 이미 시사한 셈이다.

그러나 박병호가 받아든 연봉이 포스팅 금액에 비해 낮은 편일 뿐, 과거 아시아와 국내 선수들의 연봉수준과 비교했을 때 기록적인 수치다.

박병호는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아시아 야수 중에서는 스즈키 이치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게 됐다. 또 한국인 선수 중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 **박병호 영입 미네소타 목표는?**

박병호가 메이저리그 타석에 서면 박찬호, 김병현, 서재응, 이상훈, 구대성, 최희섭, 추신수, 류현진, 강정호 등에 이어 빅리그에 선 15번째 한국 선수가 된다. 물론 마이너리그까지 포함할 경우 미국에 진출한 한국 선수로는 62번째다.

박병호와 계약한 미네소타 트윈스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아메리칸리그에 속한 팀이다. 내셔널리그와 달리 아메리칸리그는 지명타자 제도를 채택한다. 미네소타 구단이 박병호를 지명타자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팀내 간판 1루수 조 마우어가 있기 때문에 박병호가 타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공산이 크다는 것.

미네소타는 올 시즌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에서 83승 79패(승률 0.512)로 2위에 올랐지만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밀려 포스트시즌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월드시리즈(WS)에서 1924년, 1987년, 1991년 세번이나 우승한 전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2011년과 2014년 사이에는 세 차례나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최하위에 머물렀다.

지난해부터 지휘봉을 잡은 폴 몰리터 감독이 올해 지구 2위 성적을 올리며 최하위권 탈출에 성공했다.

박병호를 영입한 미네소타는 내년 시즌 25년만에 4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한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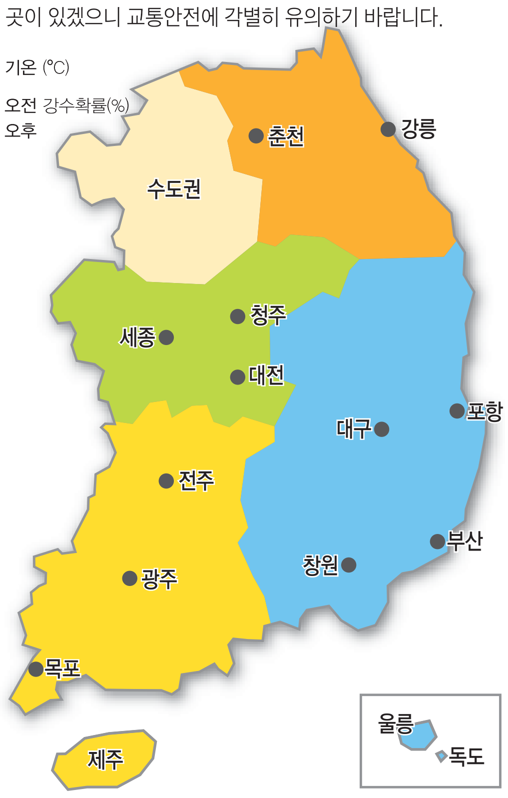
해뜸/07:29 | 해짐/17:14

12월 3일 목요일 (음력 10월 22일)

칼바람에 눈 내리는 곳 많아… 교통안전 유의

새벽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점차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충청이남 서쪽지방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지역	기온 (℃)	오전 강수확률(%)	오후
춘천	−2/2	70	70
강릉	2/6	10	30
세종	1/4	30	80
대전	2/5	70	80
청주	0/5	70	80
광주	2/6	60	80
전주	2/3	60	80
목포	4/6	20	80
제주	7/9	20	60
대구	2/6	60	60
창원	3/10	10	20
포항	4/8	20	10
부산	4/10	10	10
울릉	5/6	2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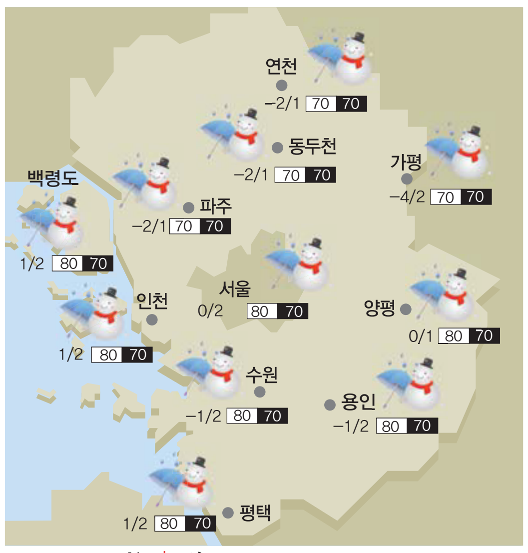
수도권 날씨

2 ~ 0 ℃

체감온도
피부질환 가능지수
감기 가능지수
천식-폐질환 가능지수

밀물과 썰물

지역	밀물	썰물
부산	01:15/13:22	07:14/19:44
인천	09:34/22:02	03:41/15:42
울산	00:15/12:11	06:31/18:33
군산	08:03/20:33	02:31/14:23
목포	07:02/19:38	00:16/12:1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女 빙속 대표팀 부상 연발 월드컵 '금빛 레이스' 제동

부상으로 3차 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한 김보름. /연합뉴스

김보름·장미·박승희 출전 어려워 이상화, 라이벌 장홍과 자존심 대결

한국 여자 스피드스케이트 대표팀의 '금빛 레이스'에 제동이 걸릴 위기다.

대표팀은 2015-2016 세계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시리즈에 참가하고 있다. 당장 이번주말 월드컵 3차 대회를 앞두고 있지만 주요 선수들이 잇단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2일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3차 대회에 김보름, 장미(이상 한국체대), 박승희(화성시청)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여자 스피드스케이트 대표팀은 이번 시즌 월드컵 1, 2차 대회에서 '빙속여제' 이상화가 500m 디비전A(1부리그)에서 혼자 금메달 1개·은메달 2개를 따낸 것을 비롯해 장거리 종목의 유망주 김보름이 월드컵 1차 대회 여자 매스스타트 디비전A에서 우승하는 등 승승장구해왔다. 그러나 부상이라는 복병을 만나 초반 상승세를 이어갈 지 미지수다.

쇼트트랙에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성공적으로 전향한 박승희는 월드컵 1, 2차 대회를 마친 뒤 허리디스크 증세가 악화해 이번 월드컵 3, 4차 대회 출전을 포기하고 재활에 들어갔다.

월드컵 2차 대회 매스스타트에서 마지막 바퀴를 돌다가 넘어지면서 최하위로 밀렸던 김보름도 허리 위의 핏줄이 터지고 연골을 다쳐 월드컵 3, 4차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또 지난 주말 독일로 떠난 여자 대표팀의 단거리 기대주 장미는 현지 훈련 도중 링크에서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장미는 현지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돼 한동안 월드컵 시리즈 출전이 어렵게 됐다.

주요 선수들의 부상으로 대표팀이 이상화(사진)에게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여자 500m 세계기록(36초36) 보유자인 이상화는 월드컵 1차 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목에 걸었고, 2차 대회에서는 은메달 1개만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4차례 레이스에서 3차례나 36초대의 기록하면서 3차대회 이후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이상화는 라이벌 장홍과의 맞대결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월드컵 1차 대회에서 이상화와 나란히 금메달 1개·은메달 1개씩 나눠 가진 장홍은 2차 대회에서는 금메달 2개를 모두 챙겼다. 이상화는 이번 3, 4차 대회에서 장홍을 뛰어넘겠다는 각오지만 장홍 역시 지난 4차례 레이스에서 3차례나 36초대를 기록하며 절정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유현희 기자

박병호 vs 테임즈 '리턴매치' 승자는?

〈MVP 테임즈〉

2015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KBO, 8일 포지션별 10명 선정 홈런왕 vs 기록왕 '1루수' 경합

지난달 24일 '2015 타이어뱅크 KBO 시상식'에서 MVP에 오른 NC 테임즈(오른쪽)가 나란히 앉아 있던 넥센 박병호에게 인사하며 장난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호냐 테임즈냐.'

박병호(29·미네소타 트윈스)와 에릭 테임즈(29·NC 다이노스)가 '2015 타이어뱅크 KBO 골든글러브'를 놓고 자웅을 겨룬다. 테임즈는 개인 처음이자, 외국인 1루수 첫 수상에 도전하고 박병호는 4년 연속 수상에 도전한다.

KBO는 8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올 시즌 포지션별 최고 선수를 선정하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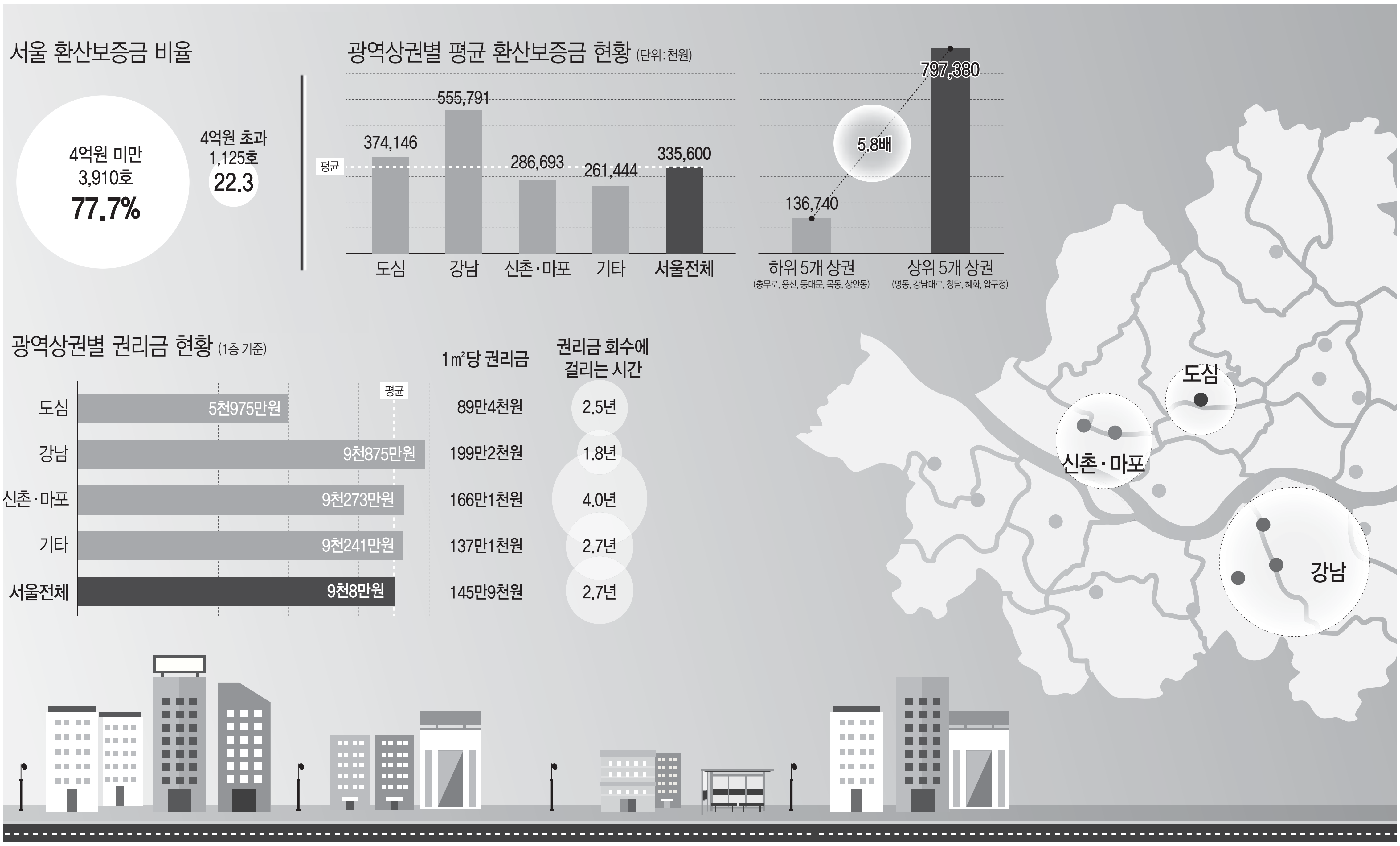
올 시즌 KBO 리그에 등록한 선수 628명 중 44명이 포지션별 후보로 올랐고 단 10명 만이 황금장갑의 주인공이 된다.

올해 KBO 리그를 담당한 취재 및 사진기자, 중계 PD, 아나운서, 해설위원 등 미디어 관계자를 대상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 투표로 주인공이 결정된다.

테임즈와 박병호는 1루수 포지션을 두고 치열한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 테임즈는 한국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40홈런-40도루(47홈런-40도루)를 달성했고 타율(0.381)·장타율(0.790)·출루율(0.497)·득점(130개) 등 타격 4개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박병호는 한국 최초로 2년 연속 50홈런을 달성했고 4년 연속 홈런왕에 올랐다. 타점 부문에서도 한 시즌 최다 기록(146개)을 작성했다.

지난해까지 골든글러브 1루수 부문은 이승엽, 이대호, 김태균, 박병호 등이 수상자로 올랐다.

정규시즌 MVP 투표에서는 테임즈가 50표를 얻어 44표를 얻은 박병호를 6표차로 제쳤다. 이번 골든글러브 시상식 팬 입장권은 2일 오후 2시부터 KBO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250명(1인 2매)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입장권은 8일 오후 2시부터 행사장 1층 로비에서 본인 확인 후 수령하면 된다. /유현희 기자



역시 '강남불패'

보증금 가장 비싸고… 권리금 회수는 가장 빨라

2015 서울시 상가임대정보·권리금 실태 조사

평균보증금 7억9000만원 넘지만 권리금 9800만원 메우는데 2.7년

서울 중·대형상가 평균 환산보증금은 3억3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동인구가 많은 명동, 강남대로, 청담, 혜화, 압구정 상가의 평균환산보증금은 7억9738만원으로 하위 5개 상권(충무로, 용산, 동대문, 목동, 상암동)의 1억3674만원보다 5.8배 높았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또 평균 계약 기간은 6.1년, 권리금은 1층 기준 평균 9000만원에 달한다. 권리금을 회수하는 데는 2년 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7일~8월 25일까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서울지역 33개 상권 내 중대형매장 728동 5035호를 표본으로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정보·권리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광화문과 명동·서울역 등 도심, 서초·압구정 등 강남, 신촌·홍대·합정 등 신촌·마포, 건대입구·경희대·목동·혜화동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의 한 지하철 지하상가 모습. /연합뉴스

◆환산보증금 4억 미만 상가건물 77.7% 달해

전체 5035호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기준인 환산보증금 4억원 미만의 점포는 3910호(77.7%)였고, 4억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1255호(22.3%)였다. 지역별로는 강남의 환산보증금이 5억557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화문·종로 등 도심 3억7415만원, 신촌·마포 2억866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총계약기간 평균 6.1년…도심 6.6년 '최장'

서울 상가 '현재 계약기간'은 도심·강남 2년, 신촌·마포 2.1년인 것으로 집계됐고 '총 계약기간은' 도심 6.6년, 강남 5.5년, 신촌·마포 5.2년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상가 총계약기간이 평균 6.1년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을 웃돌고 있다"며 "갱신계약 요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리금 강남 9875만원 '최고'…회수 평균 2.7년

서울 상가 단위면적(㎡) 당 평균임대료는 6만500원이었다. 지역별로는 도심권 10만5800원, 강남 7만7600원, 신촌·마포 5만1600원으로 이어졌다. 2년 전인 2013년 3·4분기 대비 서울 상가 임대료는 평균 1.9% 상승한 반면 신촌·마포(3.8%), 강남(3.3%), 도심(2.3%)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지역별 상가 평균 권리금은 강남 9875만원, 신촌마포 9272만원, 기타지역 9241만원, 도심 5975만원으로 조사됐다. 단위면적 당 권리금은 1층 기준 평균 145만9000원이며 강남지역이 199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 평균 권리금은 도·소매업이 평균 984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숙박·음식점업 9202만원, 예술·스포츠업·여가업 5000만원 순이었다. 권리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7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신촌 4년, 기타지역 2.7년, 도심 2.5년, 강남 1.8년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현재 9% 이내인 임대료인상률을 시도 실정에 맞게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국회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김용복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은 "시가 준비하고 있는 장기안심상가, 상가매입비 융자 등을 통해 임차상인이 안정적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3355호 2015년 12월 3일 목요일

[라이프]
부동산은
'강남불패'
19

연재만화

14